

5

May 2023
Vol.377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LUMN
옆에 있고, 곁에도 있다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2023년 하반기 기획공연

클릭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효로미디어를

©Warner Music Korea. lee soojin
조수미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소지로



필리



이은미



12인의 성난사발들



파리발리

손이살흔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제 12회 부산사랑 이태석 기념음악회



PROGRAM

-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104
- 변스타인** 오페레타 '캔디스' 서곡
-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이중창 <말해봐, 우리뿐이야> 외 수곡



예술감독 **오충근**

첼로 **크리스틴 정현리**

바리톤 **문정현**

소프라노 **김소울**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023. 5. 24.(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문의 ^{(사) 부산사랑} 이태석기념사업회 www.johnlee.or.kr 051.637.0125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무료관람 응모 **NAVER** 부산사랑이태석기념사업회

www.johnlee.or.kr 추첨 후 개별통지

*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본 음악회는 예술인 재능기부 공연입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유키구라모토 부산콘서트 YUHKI KURAMOTO CONCERT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 2023.05.26(금)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R 70,000 S 50,000 A 30,000

예매 : 051.607.6000 (ARS 1번)



YUHKI KURAMOTO PIANO CONCERT IN BUSAN



CREDIA MUSIC & ARTISTS

부산시립무용단 제87회 정기공연



10002

Scheherazade Rimskii-Korsakov 림스키코르사코프



Nights

천 두 번째의 밤
춤추는 세헤라자데

5.12. 금

19:30

5.13. 토

1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 최수열 예술감독
부산시립무용단 연출 / 이정호 예술감독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ARS 1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 시립무용단

우리의 마술같은 순간

마술사 엘의
드라마틱 매직 콘서트

마술

Moments of Magic

2023. 5. 13 (토) 3:00pm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주최 |  문화도시창조
영도문화예술회관 주관 |  문화도시창조
영도문화예술회관 **L'ILLUSION**
prestige

입장료 | 일반회원 2만원, 정기회원 1만5천원, VIP회원 1만원 예매 | 영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에스24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관람연령 | 48개월이상관람가



영도문화예술회관 공연소개

Park Sang Min
“니가 그리운날엔”

박 상 민 밴 드 콘 서 트

Band Concert

2023. 5. 26 FRI 7:30PM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주최·주관  문화도시창조
영도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일반 40,000원, 정기회원 30,000원, VIP 회원 20,000원 예매 영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에스24 문의 051-419-5571~4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영도문화예술회관 공연소개

SUN	MON	TUE	WED
<p>예매</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1	2	3
7	8	9	10
<p>제4회 매드라인 정기연주회 18:00</p> <p>대 2만원·1만원/매드라인(010-8248-9212)</p>		<p>더뉴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19:30</p> <p>중 전석 2만원/더뉴앙상블(988-3087)</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p> <p>캠 전석 1만원</p> <p>부산시립예술단공연사업팀 (607-3113, 3136)</p>	<p>북바람 15:00</p> <p>중 불교방송(797-5120)</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p> <p>캠 전석 1만원</p> <p>부산시립예술단공연사업팀 (607-3113, 3136)</p>
14	15	16	17
<p>이현우 바이올린 리사이틀 17:00</p> <p>캠 이현우(010-6472-9100)</p>		<p>바리톤 하병욱 독창회 19:30</p> <p>중 초대/하병욱(950-6564)</p>	<p>부산예술고등학교 제35회 정기연주회 19:30</p> <p>대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p> <p>부산시립합창단 '지구재민' 19:30</p> <p>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공연사업팀 (607-3113, 3136)</p>
21	22	23	24
<p>제21회 부산울산 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세계 부부의 날 기념 '사랑' 15:00</p> <p>대 원불교 부산울산교구(245-0717)</p> <p>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68회 감성콘서트</p> <p>중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7787-3086)</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3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p> <p>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앙상블 KLAON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 19:30</p> <p>중 앙상블 KLAON(010-6284-6357)</p> <p>박지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p> <p>캠 초대/박지은(010-5799-5890)</p>	<p>제12회 부산사람 이태석</p> <p>대 초대(추첨 후 개별통화) (사)부산사람 이태석</p>
28	29	30	31
<p>제53회 사랑나눔음악회 17:00</p> <p>대 UKO(988-3087, 010-3863-3087)</p>		<p>2023 제39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p> <p>대 부산MBC(760-1121)</p> <p>2023 제39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p> <p>중 부산MBC(760-1121)</p> <p>2023 제39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p> <p>캠 부산MBC(760-1121)</p>	<p>2023 제39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p> <p>대 부산MBC(760-1121)</p> <p>2023 제39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p> <p>중 부산MBC(760-1121)</p> <p>2023 제39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p> <p>캠 부산MBC(760-1121)</p>

ED	THU	FRI	SAT	
3	4	5	6	
<p>부산시립합창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10:30(단체관람),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한국예술가협회 창립기념음악회 19:30 중 초대/한국예술가협회(010-9550-4649)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작 II' 19:30 첼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합창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11:0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드미트리 시쉬킨 내한 피아노 리사이틀 with 또모 19:00 중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주)또모(02-540-2706)</p>	<p>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64회 정기연주회 15:00, 19:30 중 초대/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3815-3190) IPB 실내악 연주 시리즈 'French Connection' 19:30 첼 전석 2만원/IPB(070-8018-8303)</p>		
0	11	12	13	
<p>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생명나눔 음악회 19:30 첼 초대/(사)한국장기기증협회(635-1001)</p>	<p>2023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17:00 대 무료/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605-5116)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타일러 라쉬' 15:0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8회 벨라무지카 정기연주회 17:00 첼 초대/벨라무지카(010-5520-8728)</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9회 정기연주회 'Insight Music: 통찰의 시간'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부산시립합창단 '지구재그 음악회' 10: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공연사업팀(607-3113, 3136) 임재홍의 Eight Seasons 19:30 첼 전석 2만원/가온클래식(070-8811-0513)</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11:00(단체관람), 19:3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5회 국악정기연주 19:00 중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 제37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음악회' 19:30 첼 (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디 첼리스트 제13회 정기연주회 17:00 중 (사)디 첼리스트(010-6550-6971)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헌정' 17:00 첼 전석 3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7	18	19	20	
<p>기념음악회 19:30 대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웍(760-1494)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19:30 첼 김민정(010-6531-0307)</p>	<p>제1240회 MBC 목요일음악회 19:30 대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웍(760-1494)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19:30 첼 김민정(010-6531-0307)</p>	<p>채희정 피아노 귀국 독주회 19:30 첼 채희정(010-6445-7172)</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가정의 달에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17:00 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4	25	26	27	
<p>기념음악회 19:30 대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웍(760-1494)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19:30 첼 김민정(010-6531-0307)</p>	<p>제1240회 MBC 목요일음악회 19:30 대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웍(760-1494) 김민정 피아노 독주회 19:30 첼 김민정(010-6531-0307)</p>	<p>채희정 피아노 귀국 독주회 19:30 첼 채희정(010-6445-7172)</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가정의 달에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17:00 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31	<p>사랑채극장</p> <p>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5월 3일(수)-28일(일) 평일 단체공연, 공휴일·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 입장료: 전석 1만2천원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전시실</p> <p>한국추사서화예술 전국공모대전 5월 3일(수)-5월 4일(목) • 문의: 한국추사서예기협회(632-7077) ※ 5월 3일(수) 오후 2:00 개막식 및 시상식</p> <p>제43회 전국서도민전 5월 24일(수)-5월 28일(일) • 문의: (사)한국서도예술협회(441-7081) ※ 5월 24일(수) 오후 5:00 시상식</p>	

SUN	MON	TUE	W
<p>예매</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1	2	3
<p>7</p> <p>뮤지컬 번개맨:우주최강 번개삼총사 11:00, 14:00 대 6만6천원·3만3천원 / (주)하늘이엔티(1655-6675) 청소년연극 '자전거 여행' 15:00 소 청소년 무료 / 극단 상상창고(010-6567-8801)</p>	8	9	10
<p>14</p>	15	16	<p>경현종합예술단 창단15주년 기념공연 대 경현시니어센터(819-0000)</p>
<p>21</p>	22	23	<p>2023 부산교육가족 예술제 대 부산시교육청(860-0000)</p>
<p>28</p> <p>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3_부산 앙코르 14:00,18:00 대 12만원·9만원·6만원·4만원 (썬라이브러리컴퍼니(070-4190-1289))</p>	29	<p>30</p> <p>제3회 청춘음악회 19:30 대 더뉴앙상블(988-3087)</p>	31

WED	THU	FRI	SAT
3	4	5	6
		뮤지컬 번개맨:우주최강 번개삼총사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3만3천원/(주)하늘이엔티(1655-6675) 뮤지컬 '복순이할배' 14:00, 17:30 소 전석 2만5천원/아트레볼루션(010-3946-1604)	뮤지컬 번개맨:우주최강 번개삼총사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3만3천원/(주)하늘이엔티(1655-6675) 청소년연극 '자전거 여행' 17:00 소 청소년 무료/극단 상상창꼬(010-6567-8801)
10	11	12	13
		◆부산시립무용단 제87회 정기공연 '1002 Nights_천 두번 재의 밤' 19:3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무용단 제87회 정기공연 '1002 Nights_천 두번 재의 밤' 16: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7	18	19	20
주년 기념공연 14:00 (0660)		제37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무용예술제' 19:30 대 부산무용협회(632-5116)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뚱을 찾아라' 15:00 대 5만원·4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3 UNIVERSAL POLE KOREA CHAMPIONSHIP 소 유니버설 폴 코리아 협회(010-4119-2483)
24	25	26	27
예술축제 15:00 (029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19:30 대 7만원·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1		전시실 한국아트페어링협회 '사라진 날들' 5월 9일(화)-5월 14일(일) 전시실2 (사)산업디자인문화예술인협회 작품전 5월 11일(목)-5월 19일(금) 전시실1	2023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사진공모전' 5월 24일(수)-5월 27(토) 전시실1 이산가족 예술프로젝트 '바람의 시간' 5월 30일(화)-6월 11일(일) 전시실 ※ 전시기간 중 월요일 휴관 • 문의/부산시민회관 630-5212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여 확인바랍니다.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우리아이 음악회

드뷔시|어린이 차지
C. Debussy | Children's corner

생 상|동물의 사육제
C. Saint-Saëns | Le carnaval des animaux

지휘 백승현 진행 최혜윤

2023. 5. 19. 11:00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CONTENTS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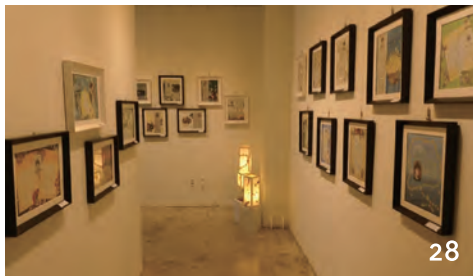
월간문화예술정보지



20



24



28

10 Column

옆에 있고, 곁에도 있다

12 Cover Story

일상에서 문화예술로 행복을 누리다

(재)부산문화회관 2023년 하반기 기획공연

20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②

MZ세대가 열광하는 반가사유상

24 세계의 콘서트홀 ①

오슬로 콘서트홀

28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대안문화와 독립예술의 거점이 되다

효로인디아트홀

30 서울통신원

창극 <정년이> 돌풍 ... 풍성한 여성서사의 매력

33 Preview

38 Review

40 Program Guide

53 New Book

54 BSCC News

예술의 초대 May 2023 Vol.377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3년 4월 25일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김명숙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위원 등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편집장 정복엽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옆에 있고, 곁에도 있다

이상현 춤 비평가

어떤 도시를 떠올릴 때 그 도시를 '상징'하는 예술단체의 이름이 먼저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예를 들면, 러시아 모스크바의 볼쇼이 발레단, 김기민이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발레단, 발레리나 박세은이 에투알(수석무용수)로 활약 중인 세계 최고(最古)의 파리 오페라발레단이 그렇습니다. 독일 서부에 있는 인구 35만 가량의 도시 부퍼탈은 피나 바우쉬의 부퍼탈 탄츠테이터 때문에 세계에 알려진 곳입니다. 사정이 우리와 다른 외국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그 도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도시의 상징인 경우가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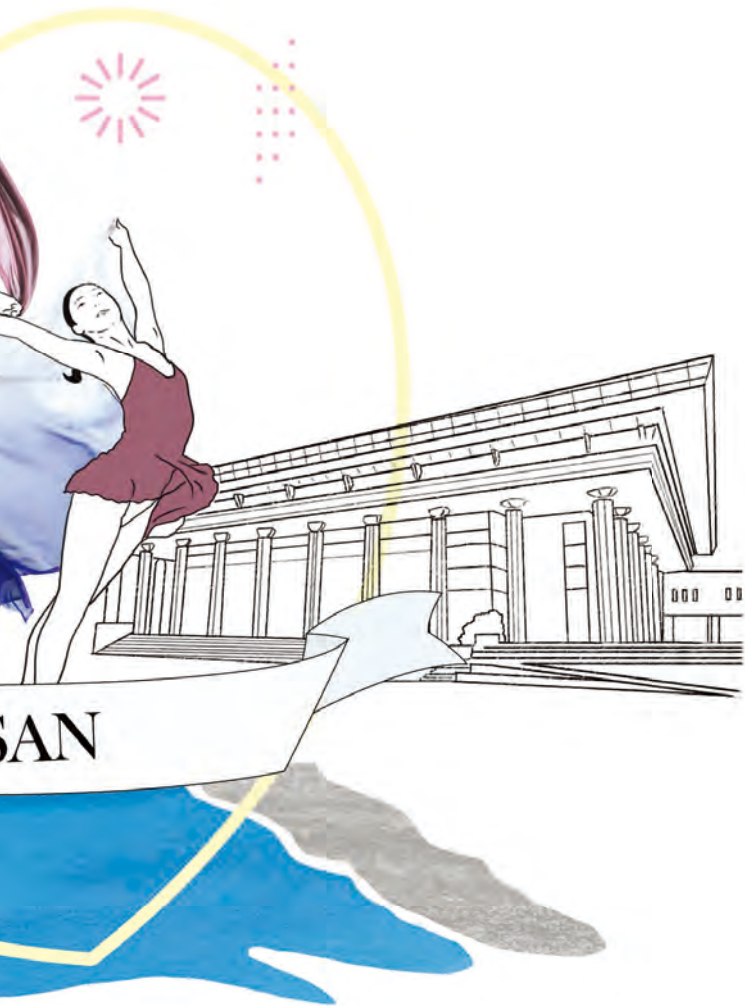
'상징'에 관해 미국의 철학자 수전 K. 랭거는 "어떤 기호가 특정 사물이나 단어, 규칙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기호를 넘어 스스로 직조한 규범적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곧 상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개념이나 단어와 같거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호'에 상상력, 문화적 의식과 가치, 종교성 등이 더해져 연상 작용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상징'입니다. 어떤 예술단체나 문화시설이 부산의 예술적 특성을 연상시킬 수 있다면 부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1973년 부산시민회관이 전국 문예회관 중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올해가 개관 50주년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시민회관 개관보다 이른 1962년 시립교향악단 창단으로 시작합니다. 1972년 시립합창단을 창단했고, 1973년 시립무용단이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합니다. 올해는 시



립무용단 창단 50주년을 맞이하는 공연과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1988년 개관한 부산문화회관은 35년을 맞았습니다. 60년, 50년, 35년 동안 부산 시민과 함께한 예술단과 시설이라면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자격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 시간의 길이로는 충분한데,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옆'을 찾아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 또는 그 근방', '공간상 가장자리에서 또는 말하는 곳에서 벗어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풀이합니다. '곁'은 '어떤 대상의 옆 또는 심리적이나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 '관심이 미치는 영역이나 유대 관계가 있는 범위'로 설명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일상에서도 '옆'과 '곁'을 구분 없이 쓰기도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옆'은 주로 공간과



관련해서 쓰고, ‘곁’은 심리적, 정서적 의미를 담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있어도 ‘곁’에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없는 존재를 ‘곁’에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은 오랜 시간 늘 시민 옆에 있었습니다.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정해진 공연과 문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공공문예회관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시립예술단도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다양한 공연을 시민에게 선사했습니다. 의무를 다한 것이죠. 그런데도 부산 시민들은 문화회관, 시민회관 그리고 시립예술단을 ‘우리 부산의 것’ 혹은 ‘부산의 상징’, ‘부산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질문을 바

꾸면 문화회관, 시민회관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시민의 ‘옆’은 물론 ‘곁’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답을 당장 요구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자기성찰의 방편으로 이 질문을 되새기자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일은 어느 정도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이기보다 이타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술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더 정확하게 예술가는 매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타심을 갖고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의 ‘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술가의 이기적인 태도는 창작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보편성을 얻습니다. 한 예술가의 이기적인 면이 예술작품으로 태어날 때 그것은 인간 일반을 반영하는 보편적 감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감동합니다. 예술가는 사람들의 반응에 힘입어 창작의 동력을 다시 얻습니다. 예술과 대중의 소통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술적 소통이 잦아지면 예술가와 예술을 향유하고 감상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같은 시설은 바로 이런 예술적 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오로지 예술적 소통을 위해 이기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편적 감성 전달을 전업으로 하는 예술가의 집단입니다. 예술이 대중과 일상적인 소통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옆’을 너머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미 부산시민 ‘옆’에 있었으니, 이제 ‘곁’을 지키는 존재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곁’을 지키거나, ‘곁’에 있어 줄 누군가가 있다면 행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중년을 넘어선 공간과 예술단체가 올해 여러 매듭을 지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매듭이 부산 시민의 ‘곁’을 늘 지키는 상징 같은 존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2023년 하반기 기획공연

공연예술의 생생한 감동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이 2023년 하반기에도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그동안 공연장별 특성화 전략에 맞춘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던 (재)부산문화회관은 하반기에도 '부산 문화의 본당'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순수공연예술 중심의,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부산시민회관은 대중 장르 중심의 시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고품격 클래식에서부터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은 뮤지컬과 연극, 온 가족이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성찬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감동의 무대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관객을 매료시키는 고품격 클래식 무대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와 세계적인 첼로 앙상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가 7월 4일 부산을 찾는다. 천상의 보이스와 첼로 앙상블이 빛어낼 마법같은 무대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독일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에코 클래식 상(ECHO Klassik)'을 수상한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클래식은 물론 영화음악, 재즈, 탱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 1986년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이래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자리매김한 조수미는 그동안 이태리 라 스칼라, 런던 코벤트 가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 등 세계 정상급 오페라 하우스와의 공연에 주역으로 출연하며 전 세계 음악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동안 정통 클래식부터 크로스 오버까지 장르를 뛰어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조수미는 지난 해 12월,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담은 한국 노



©Warner Music Korea_Lee soojin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래 앨범 'In Love 사랑할 때'를 발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선사하기도 했다.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는 세계적인 교향악단인 베를린 필하모닉의 첼리스트 12명이 율리우스 클렌겔(Julius Klengel)의 '12대의 첼로를 위한 찬가'를 녹음하기 위해 시작된 앙상블로, 그동안 특별한 음색과 뛰어난 앙상블로 전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켜왔다.



소지로

오래된 음악팬이라면 NHK 다큐멘터리 '대항하'의 영상을 압도하며 흐르던 오카리나 연주를 기억할 것이다. 또 요즘 세대라면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엔딩곡 'Always with me'의 선율을 흥얼거릴 것이다.

11월 9일에는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전 세계에 알린, 오카리나 하면 떠오르는 일본의 오카리나 연주자 소지로가 부산을 찾는다.

오카리나 제작과 연주 두 분야 모두에서 1인자로 꼽히는 소지로는 지난 1975년, 처음 들은 오카리나의 맑고 고운 음색에 매료되어 오카리나를 제작하기 시작, 제작한 오카리나만 만 개가 넘는다. 소지로는 오카리나에 대해 '공기를 갈아 일구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제작한 오카리나는 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움과 특유의 음색을 지니고 있다. 소지로는 새로운 창작활동을 통해 매년 오리지널 음반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일본뿐 아니라 오카리나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대만,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오카리나 연주자들과 함께 소지로의 대표곡 '대항하', 'Always with me'를 비롯해 '천공의 오리온' 등 다채로운 곡으로 오카리나 연주의 진수를 들려준다.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이밖에 6월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2023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가 펼쳐진다.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인 이바노 프랑키비츠의 주립 교향악단으로,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다양한 국가의 초청을 받으며 평화를 기원하는 연주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2003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의 일환으로, 지휘자 김현국이 지휘하는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외에도 피아니스트 황성훈, 첼리스트 양욱진, 오보이스트 권성은 등 지역의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10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는 음악을 통한 추억여행 <모던 에프터눈>이 펼쳐진다.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열리는 <모던 에프터눈>은 피아니스트 김소영, 바이올리니스트 박강현, 첼리스트 이호찬으로 구성된 '영 앙상블'과 소프라노 오신영이 함께하는 무대로, 흔히 클래식하면 떠



오르는 서유럽 작곡가들의 작품 대신 미국, 남미,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작곡가들의 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클래식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의 여름을 밝히는 대작 오페라

8월에는 두 편의 대작 오페라가 부산의 여름을 밝힌다. 우선 '4:3영령들을 위한 진혼곡'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이 8월 18일 부산을 찾는다. 제주아트센터와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기획·제작한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은 제주4:3사건을 세상에 널리 알린 현기영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주4:3사건의 아픔과 집단의 학살로 아이를 잃은 어미의 슬픔을 4막의 오페라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제주인들의 시각과 언어로 표현한 작품으로, 영상과 삽화, 낭송, 자막 등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 웅장하고 섬세한 오페라와 세련된 뮤지컬의 연극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잘 녹아들어 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함께 출연한다.

8월 26일과 27일에는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무대로 오페라 <토스카>가 무대에 오른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부산 오페라 시즌'은 특히 지난해부터 공



순이삼촌

개 채용을 거친 시즌 단원제를 운영하며 지역의 예술인들이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단원으로 오페라에 참여하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 '라보엠',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 3대 명작 오페라라 불리는 오페라 <토스카>를 선보인다. 밀도감 있고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자랑하는 푸치니의 <토스카>는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동안 주인공인 가수 토스카와 그녀의 연인인 화가 카바라도시, 토스카를 차지하려는 경시총감 스카르피아 사이에 일어난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선영 연출, 김현수 지휘로, 토스카에 소프라노 서선영, 정혜민, 카바라도시에 테너 신상근, 허동권, 스카르피아에 바리톤 안세범, 박정민 등 실력과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대중성과 작품성으로 관객을 사로잡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제작극장으로서의 기능 확대와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연출 김지용)를 시작으로, 오페라 '리골레토'(연출 이의주), 2020년 연극 '결혼'(연출 김광보), 2021년 무용 'MoTI/어디로부터'(안무 이정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연출 이의주), 2022년 무용 '드래곤즈(안무 안은미)', '수퍼타이거'(안무 이정윤) 등 매년 '메이드인부산' 공연을 제작해왔다. 올해는 '야구의 도시' 부산을 노래하는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가 7월, 시민들과 만난다. <야구왕 마린스>는 전국 최강을 꿈꾸는 '마린스 리틀야구단'의 성장기를 그린 뮤지컬로,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하는 등 제작 전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3년 국립발레단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신작 <돈키호테>는 9월 16일과 1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발레 <돈키호테>는 스페인 극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모티브로, 지난 1869년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의 오리지널 초연 이후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돈키호테>의 명장면인 '카트리'와 '바질'의 결혼식 그랑 파드되 등 원작의 감동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캐릭터와 스토리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어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풍부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장에서 펼쳐지는 태양보다도 뜨거운 정열의 무대를 부산에서 느낄 수 있다.

하반기에는 형식도 내용도 다채로운 세 편의 창작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우선 국내 최초 오페레타 형식의 새로운 뮤지컬 <파리넬리>가 9월 23일과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펼쳐진다. 2015년 제9회 더뮤지컬 어워즈 '올해의 창작뮤지컬상'을 비롯하여 3개 부문을 수상한 <파리넬리>는 18세기 유럽을 뒤 흔들었던 최고의 오페라 가수 파리넬리의 화려한 삶에 감춰진 슬픈 운명을 그린 작품으로, 16인조 오케스트라와 21명의 배우,

20명의 대규모 합창단이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제5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5관왕 수상에 빛나는 한국 창작뮤지컬 <마리 퀴리>도 부산을 찾는다. 10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마리 퀴리>는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 '방사능 연구의 어머니' 등으로 잘 알려진 마리 퀴리의 삶을 다룬 창작뮤지컬로, 과학자로서의 업적보다는 자신의 연구로 인해 초래된 비극에 맞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과 심리를 조명하고 있다. 평범한 오늘에 시작된 특별한 시간여행, 뮤지컬 <렛미플라이>는 12월 15일과 16일 부산문화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시간여행 스토리를 담고 있는 <렛미플라이>는 지난해 제7회 한국뮤지컬 어워드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작품상, 작곡상, 신인남우상 등 3개 부문을 석권하며 명실공히 2022년 최고의 창작뮤지컬로 꼽힌 바 있다.

부산시민회관에서는 관객과 평단을 동시에 사로잡은 연극 두 편이 선보인다. 7월 7일과 8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는 배심원 토론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지난 1957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동명의 영화가 원작으로, 지난 1964

일 상 에 서 문 화 예 술 로

년 런던 초연 후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재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다. 마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프롤로그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배심원실 안에서 일어난 일만을 다루고 있음에도 치밀한 극적 구조와 긴장감 넘치는 언쟁 장면을 통해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인다. 관객이 뽑은 '국립극단에서 보고 싶은 연극 1위'를 차지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11월 3일과 4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제52회 동아연극상 대상·연출상·연기상·시청각디자인상, 제8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연출상·연기상, 2015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등 주요 연극상을 휩쓸며 언론과 관객의 찬사를 받은 국립극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장엄한 서사를 바탕으로 한 연출가 고선웅 특유의 재치 있는 리듬감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중국 원나라 기군상의 작품인 '조씨고아'를 원작으로, 오늘날까지도 '동양의 햄릿'이라 불리며 다양하게 변주되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어린이들의 친구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날 수 있는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은 8월 2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인어공주', '라이온 킹', '알라딘', '미녀와 야수' 등 클래식 명작에서부터 최신작 '라푼젤', '모아나', '겨울왕국', '엔칸토'까지 우리를 웃고 울게 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아름다운 음악들을 오리지널 영상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30인조 디토 오케스트라와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로 구성된 디즈니 싱어즈의 생생한 라이브로 특별



12인의 성난 사람들



장자는 숲속의 미녀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여유와 돌고래

한 감동을 전한다.

동화구연과 무용이 어우러지는 두 편의 이색 작품도 준비되어 있다. '짱구엄마'로 우리에게 친숙한 KBS 성우 송연희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8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물레바늘에 찢려 깊은 잠에 빠진 오로라 공주와 공주를 구해내는 데지레 왕자의 사랑 이야기가 (사)서울시티발레단과 성우 송연희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통해 동화발레로 재탄생한다. 구연으로 들려주는 이솝우화와 현대무용의 만남 <여우와 돌고래>는 11월 18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여우와 돌고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서로의 간극을 이해해보는 이야기로, 여우와 돌고래가 만나 서로의 틈을 느껴보고 틈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동화구연뿐 아니라 무용, 영상, 사운드 효과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식의 가족무용극으로 온 가족이 공감하며 함께 즐길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판타지 <이상한 엄마>는 9월 9일과 1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이상한 엄마>는 '구름빵', '알사탕', '장수탕 선녀님' 등 제작되는 뮤지컬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백희나의 또 다른 작품을 뮤지컬로 제작한 무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엄마에게 찾아온



이상한 엄마 ©헬리콥리코리애이션즈(주)

마법과도 같은 특별한 하루를 그리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 전문극장인 사랑채극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피터팬'의 그 후 이야기를 담은 '피터팬과 후크선장'(6월 9일-7월 23일),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입문용 클래식인 프로코피예프의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8월 18일-9월 24일)가 준비되어 있다.

지역의 예술인과 호흡하다

지역 예술가가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도 펼쳐진다. 청년 버스커들의 대축제 <부산버스킹 페스타>는 올해 7월 1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처음 열린 <부산버스킹페스타>는 실연심사를 부산의 버스킹 성지인 광안리, 해운대, 서면에서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4월, 1차 온라인



영상 심사와 2차 부산 버스킹 명소에서 열리는 실연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0개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특히 <부산버스킹페스타>는 국내 최대 OST제작사 및 음악감독,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인 DSP미디어 프로듀서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향후 수상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은 '아코프로젝트'는 수상 이후 카카오TV·넥플릭스 드라마 '어쩌다 전원일기' OST에 음악연주로 참여한 바 있다.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2023 대학 교향악 축제>는 올해 11월 첫 선을 보인다. 최근 인구 감소 및 청년들의 타지역 유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5개 예

일 상 에 서 문 화 예 술 로

술대학과 뜻을 모은 이번 축제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부산 최고의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내실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경성대학교와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5개 대학 교향악단이 참여, 열정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오는 11월 열리는 지역 예술인들의 대표 축제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는 앞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허경미무용단(한국무용), 김옥련발레단(발레), 댄스프로젝트 에게로(현대무용)가 무대에 오른다.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는 부산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공연예술계의 창제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지역 예술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처음 선보였다. 장르 구분 없이 진행되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매년 장르별로 창작활동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면서 올해는 '무용'으로 장르를 한정할 바 있다.

열정과 재능을 갖춘 지역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고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청년희망날개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는 12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는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성악전공자들에게는 관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며, 더불어 선배 성악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첫발을 내딛는 후배 성악가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무대를 선사한다.



김정 고무신



박영민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작품을 올려온 지역 극단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우선 관객들의 입소문만으로 부산 연극 사상 초유의 관객을 동원하며 서울을 비롯 전국 순회공연을 가졌던 극단 에저또의 그때 그 시절 이야기 '검정 고무신'이 7월 22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배우 중심의 극단이라는 창단 이념 아래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여온 극연구집단 시나위는 그들만의 감성으로 풀어낸 안톤 체홉의 대표작 '벚꽃동산'을 12월 22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대에 올린다.

글로벌 대중음악에서부터 렉처콘서트까지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글로벌 대중음악 축제의 장 <2023 부산 인터네셔널 뮤직페스타(BIMF)>는 9월



말로

이은미

1일과 2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Diva in Jazz'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첫날, '녹턴', '애인있어요' 등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디바 이은미를 시작으로 둘째날에는 한국적인 정서 가득한 스캣의 여왕 재즈싱어 말로와 프라이드의 여성 보컬리스트로 사랑받아온 시호가 출연, 재즈 풍미가 가득한 부산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BIMF 기간 동안에는 부산의 정상급 재즈 디바들이 총출동, 더욱 풍성한 축제를 선사한다.

하반기부터는 (재)부산문화회관의 2023년 새로운 시리즈인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를 만날 수 있다. 오페라와 미술이 함께하는 렉처콘서트로, 한편의 오페라를 친절한 해설과 함께 성악가들의 라이브로 감상하며, 그 작품과 관련된 미술작품을 미술전문가 이주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날 수 있다. 7월 13일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오페라 카르멘>을 시작으로 8월 31일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10월 19일 <동백꽃 질 무렵-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등 세 작품이 소개된다.

이밖에 도심 속 작은 문화축제 <2023 시민뜨락축제>와 우수 예술콘텐츠를 스크린으로 만나는 <배시시 명품극장>이 하반기 펼쳐진다.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낮 개최

되는 <2023 시민뜨락축제>는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야외축제로, 올해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며 부산시립예술단과 '2023 부산버스킹페스타'에 입상한 실력과 버스커들의 무대로 꾸며진다. 예술의전당이 선별한 우수 공연실황을 소개하는 <배시시 명품극장>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6월 28일)를 시작으로 시크릿 뮤지엄(8월 30일), 연극 '여자만세'(10월 25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11월 29일) 등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담은 4편의 공연 및 전시실황을 만날 수 있다.

5월 4일 티켓 예매 오픈

2023년 하반기 기획공연의 티켓 예매는 5월 4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정기회원이거나 하루 앞서 5월 3일 오후 2시부터 선예매 할 수 있다. 티켓 예매는 고객지원센터(051-607-6000)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가능하다.

※ 상세 일정 56p 참조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시민뜨락축제

MZ세대가 열광하는 반가사유상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칠레의 바칼라르 지역에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파는 TV 프로그램 <서진이네>에서 눈길을 끄는 물건이 등장했다. 주문을 구분하기 위해 주어진 여러 색의 작은 조각인데, 한 손에 쥐어지는 이것을 현지인들은 신기해했다. 방송을 보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익숙한 조각이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 조각에 대해 현지인에게 설명하진 않았다. 어렵פות이 우리 유물을 모티브로 한 굿즈라는 정도는 알지도 모르겠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작은 조각상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반가사유상 굿즈 이미지(출처: 중앙일보)



완판된 굿즈, 반가사유상

보라색, 하늘색, 흰색, 검정색, 금색 등 다양한 색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인 반가사유상이다. 몇 해 전 BTS의 리더 RM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몇 번이나 품절된 제품이다. 원본인 <반가사유상>의 형태를 작은 크기의 조각상에 잘 재현하기도 했고 고급스럽고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도판 1]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MZ세대에게 약간의 사치이지만 보기에 예쁘고도 요샛말로 힙한 ‘반가사유상’은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은 물건(굿즈)일 것이다. 또한 우리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2021년에 새롭게 조성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전시실인 ‘사유의 방’과 연결된다는 것도 알 것이다.^[도판 2]

‘사유의 방’은 국보이자 백제의 청동 반가사유상 두 점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사유를 하고 있는 뛰어난 두 유물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둥근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두 반가사유상이 우리의 눈높이보다 살짝 높이 앉아있다.



2-1



2-2

2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전시 전경
(출처: <https://museumnews.kr/297ex01>)

전체적으로 갈색조로 어두우면서도 은은하게 두 반가사유상을 빛이 감싸고 있다. 그리고 천장에는 별자리처럼 빛 점들로 무한대 기호를 그리고 있다. 이 공간이 주는 분위기에 관람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유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반가사유상들은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불상일지언데 우리만의 문화라 볼 수 있을까.

미륵불의 우리 식 표현,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의 두 반가사유상은 불교적 관점에서는 ‘미래에 부처가 될 미륵불(彌勒佛)’이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든 후 56억 7000만 년이 지나면 나타나는 부처로 지금은 아직 보살인 존재이다. 그래서 두 반가사유상 모두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다만 한 쪽이 더 화려한 보관과 상, 하의 모두 곡선이 가득한 의복을 입고 있고, ^[도판 3] 다른 쪽은 보다 단순한 보관을 쓰고 목걸이를 하고 있으며 하의에만 옷 주름이 있다. ^[도판 4] 두 보살을 구분하던 국보 지정번호는 국보 제도의 폐지로 옛 이름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얼마전까지 두 반가사유상을 구분하는 명칭을 공모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름이야 어떻든 세부적인 묘사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불상 모두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유행했던 미륵신앙을 담고 있다. 미륵신앙은 간단히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든 이후의 시간인 현재에 자비를 가지고 번뇌를 줄이며 업을 쌓지 않는 공덕을 쌓아가면 언젠가는 미륵불이 출현하는 아름다운 세상인 용화세계가 온다는 기대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에 비록 현생이 고되더라도 이 상황을 불심으로 잘 이겨내고 공덕을 쌓는다면, 언젠가 미륵불이 도래하는 시대에 다시 환생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3 <반가사유상> (옛 지정번호 국보 제78호) 4 <반가사유상> (옛 지정번호 제83호)
삼국시대 6세기 후반, 금동, 높이 83.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국시대 7세기 전반, 금동, 높이 93.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우리에게 익숙한 신라의 화랑에게서도 미륵신앙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화랑을 용화생도라 부르기도 했고, 주로 수련을 했다고 알려져있는 경주 인근 단석산의 절벽에 새겨진 불상 중 반가사유를 하고 있는 미륵보살의 모습도 있다. 이외에도 신라 지역에서 반가사유 형태의 조각상의 부분들이 여러 점 발견되고, 백제 지역이었던 서산의 마애불상 중에도 반가사유상이 있다. 당시 반가사유를 하고 있는 미륵보살을 예배대상으로 하는 미륵신앙이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일본에 선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목조 미륵반가사유상은 '사유의 방'에 전시된 반가사유상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도판 5] 일본의 반가사유상은 국보 1호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여전히 삼국에서 전래된 것인지 자국에서 만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삼국의 우수한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준 여러 사례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작 중국에서는 반가부좌를 하고 사유를 하고 있는 모습은 '태자사유상'이라 하여, 석가모니 부처가 출가 하기 전 태자의 모습으로 나무 아래에서 고뇌를 하고 사유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직 부처는 아닌 화려한 태자의 모습이기에, 경배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경전에 나온 대로 해탈하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이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여러 점 발굴된 반가사유상의 경우에는 미륵보살로 예배의 대상이었다. 그 연원과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으며, 삼국 이후에는 반가사유의 형태가 드러나진 않는다.

그렇지만 한반도에는 미륵신앙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마음을 이용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중 하나가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며 권력을 누렸던 궁예다. 오래전 방영된 드라마 속 캐릭터가 지금도 계속될 정도로 궁예는 기행을 일삼았는데, 그럼에도 잠시나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것은 미륵불이 도래할 거라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마음 속에 굳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5 <목조 반가사유상>
7세기 경, 적송, 높이 163.2cm, 일본 교토 광륭사 소장

미륵신앙은 삼국시대 말의 혼란기였던 궁예의 시기를 지나 고려에도 계속되었다. 다만 고려 때에는 이전의 반가사유상의 형태보다는 거대한 입상으로 만들어졌다.

불교국가였던 고려 때에는 거대한 석조 불상이 야외에 많이 만들어졌다. 돌을 공들여 깎고 다듬었던 통일신라시대 때와 달리, 고려의 석조불상은 자연석 그대로의 무게감과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거대한 크기와 함께 불상마다의 독특한 개성적 특성이 드러난다. 그중 논산 관촉사의 미륵불상^[도판 6]의 경우에는 높이가 18.2m로 우리나라 석조 불상 중 가장 크다. 일명 ‘은진미륵(恩津彌勒)’이라고도 불리는 이 불상은 당시 미륵신앙이 대중적으로 퍼져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광종 때인 968



6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국보 제323호
높이 18.2m, 968년 조성(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

년에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에는 은진미륵과 같은 거대한 불상이 충청도 지역에 많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은진미륵은 그 이름이나 유래에서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 반가사유의 형태이거나 미륵불이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거대한 불상을 통해 오랫동안 미륵보살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였던 고려인들의 마음을 상상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불교가 억제된 조선에서는 불상의 크기는 줄어들었고, 미륵보살을 예배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과 핫한 굿즈로 반가사유상이 다시 우리 삶 속에 들어왔다.

MZ세대의 핫템, 반가사유상

소위 요즘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MZ세대는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신에게 솔직하다. 이들은 개인적 취향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가성비뿐 아니라 가심비에 따른 소비를 하기도 한다. 가심비는 가격보다는 자신의 취향이나 감성에 따르는 것이기에, 종교와 상관없이形形色색의 반가사유상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현대의 우리가 여러 색의 미륵불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간 잊고 있던 과거의 우리 선조들이 의미있게 생각한 미륵불상이 간직한 미감과 이를 소중히 생각했을 우리 조상의 역사를 이 작은 조각을 통해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전통 예술작품이 그저 과거의 것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에 맞게 재탄생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릴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문화적 정체성을 다져볼 수도 있다.

과거가 쇼케이스 안에서 보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 스며들어 간다면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미륵불이 도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현실의 고된 삶을 잊고자 했던 선조들의 사상, 그리고 그 믿음을 아름다운 곡선으로 표현한 반가사유상을 이제는 우리 문화의 자부심으로 함께 하고 있다.





오슬로 콘서트홀

노르웨이 문화와 음악을 선도하는

오슬로 콘서트홀

**OSLO CONCERT HALL,
KONCERTHUS**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최근까지 우리가 만나온 극장은 대부분이 다목적 극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23년 5월 현재 국내에서의 오케스트라 전용홀은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롯데 콘서트홀, 인천 그리고 대구, 통영 음악당 정도가 전부이다. 부산은 아직 가져보지 못한 공연장이지만 부산시민공원 내에 가칭 ‘국제아트센터’가 2025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자. 오케스트라 전용홀을 지칭하는 말은 영어권에서는 콘서트홀(Concert Hall)으로 쓰고 있다. 우리는 대중가수 공연장이랑 혼용될 수 있어서인지, 국내 최초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의 초창기 이름은 ‘음악당’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콘서트홀로 변경했으며, 롯데 콘서트홀은 시작부터 그렇게 명명되었다.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도 마찬가지이다. 다목적 극장인 시민회관 건물을 리노베이션 한 대구는 유사하게 콘서트하우스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 독일어권에서는 콘체르트하우스(Konzerthaus), 네덜란드어로는 콘세르트허바우(Concertgebouw), 북유럽 언어권에서는 콘센투스(Konserthus)라고 부른다. 또는 불어권에서는 오디토리움(Auditorium)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요 오케스트라가 상주해 있는 여러 도시의 콘서트홀은 필하모니아(Philharmonie)라고 부르기도 한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주해 있는 베



오슬로 콘서트홀 내부

를린 필하모니아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고유명사로 오스트리아 빈의 뮤직페라인, 체코 프라하의 루돌피눔과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

콘서트홀 이야기 그 첫 번째로, 오슬로 필하모니이 상주해 있는 오슬로 콘서트홀(Oslo concert hall, Konserthus)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기로 하자.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는 우리와는 아주 먼 거리의 먼 도시의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북항에 들어설 가칭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설계한 스노헨타(Snohetta)가 디자인한, 2008년 완공된 오페라하우스가 오슬로 중앙역 인근 워터프론트의 중심에 있으며, 구시가지에 오슬로 콘서트홀이 자리하고 있어서, 지리적 모습이 부산과 많이 닮아 있다.

오슬로 콘서트홀은 노르웨이 문화와 음악을 선도하는 장소이며 오슬로 구도심의 중심인 비카(Vika)에 위치하고 있다. 쇼핑몰인 비카테라센(Vikaterassen)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으며, 2개의 콘서트 홀과 복수의 로비공간, 바(Bar) 그리고 매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곳은 클래식 연주뿐 아니라 재즈, 록, 팝, 컨트리, 클래식, 포크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

트라의 상설 공연장이다. 내부에는 두 개의 홀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레이트 홀 격인 스토레 살(Store Sal) 대극장은 1,400석 규모이며 다른 하나는 소극장 격인 릴레 살(Lille sal)로 260석이다. 이곳은 해마다 2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

1977년 3월에 문을 연 오슬로 콘서트홀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래드후스플라센(Rådhusplassen)을 마주한 부지에 콘서트홀을 배치하려 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같은 블록의 다른 곳에 배치되면서 한 운송 회사의 사옥을 위한 부지에 콘서트 홀이 건립되었다. 오슬로 콘서트홀에 대한 건축가 예스타 오베르흐(Gösta Åbergh)의 원래 초안은 이미 1957년에 완성되었지만 1966년이 되어서야 계획이 구체화 되었다. 관객들의 동선은 대부분 비카테라센에서 진입하는데, 부유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본 건물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포디엄 라운지와 매표소가 자리하고 있고, 아래로는 왕복 4차선의 도로가 이어져 있다.

로비에서 콘서트홀 내부로 들어가는 동선 양 옆으로는 자유롭게 옷을 걸어둘 수 있는 개방된 옷걸이가 관객 수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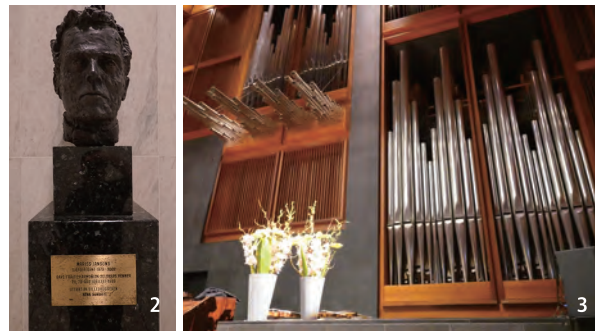
준비되어 있는데, 북유럽의 한겨울 매서운 날씨를 생각하면 필요한 구성이라고 생각되었다. 내부에 들어가면 우측에 위치한 대형 파이프 오르간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 독일 괴팅겐에서 제작하였고 7,092개의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다. 무대의 폭은 안쪽에서 객석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최소 13m에서 최대 22m의 부채꼴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깊이는 11.5m에 해당한다. 합창단이 배치되지 않을 경우는 무대 뒤가 객석으로도 활용된다.

오슬로 콘서트홀은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Oslo-Filharmonien, Oslo Philharmonic Orchestra)가 상주해 있는데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이다. 노르웨이 최초의 전문 관현악단은 1879년에 에드바르 그리그와 요한 스펠센 등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크리스티아니아 음악연맹 관현악단이었으나, 1차 세계대전으로 운영 상태가 악화되어 해체되었다. 이 악단의 단원들이 음악 애호가들의 사적 지원을 받아 '오슬로 음악애호협회 관현악단'을 새로이 창단했으며, 초대 음악 감독으로 요한 할보르센과 폴란드 출신의 이그나츠 노이마르크, 핀란드 출신의 게오르크 슈네보이트 등 세 사람이 공동으로 취임했다. 이외에도 국내외 유명 독주자들과 지휘자들이 객원으로 초빙되었고, 자금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에도 불구하고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1921년에는 독일 출신의 요제 아이벤슈츠가 단독 음악 감독으로 취임했고, 1925년에는 노르웨이 방송협회(NRK)와 계약을 맺고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침체되어 있다 종전 후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마리스 안손스, 앙드레 프레빈 등 지금은 세계적인 마에스트로가 된 지휘자들이 뒤를 이었다. 2006년부터는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인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음악 감독으로 취임해 2013년까지 재직하였고, 바실리 페트렌코를 거쳐 2020년부터 클라우스 마켈레가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고 있다. 마리스 안손스 부임 후 활발하게 진행된 해외 연주 여행과 영국 음반사인 EMI 전속으로 개시한 음반 취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주요 공연장으로는

오슬로 콘서트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노르웨이 제 2, 3의 도시 베르겐과 스타방에르에서도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글을 준비하던 4월 말미에 오슬로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콘서트홀을 찾을 수가 있었다. 1927년생인 만 95세의 현역 지휘자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Herbert Blomstedt)가 지휘하는 슈베르트 교향곡 제6번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는 무려 61년 전인 1962년부터 6년간 이곳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평소 공연장 음향에 관심이 있어 콘서트홀 1층 중간이나 2층 앞열을 선호하는데, 이번에는 블롬슈테트의 지휘를 보고 싶어서 포디엄(합창석)에 앉았다. 입장 시 악장의 부축을 받으며 나와 의자에 앉아서 30분 길이의 슈베르트 교향곡 제6번을 연주하는데, 놀랍게도 암보를 하며 디테일 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모습에 경외감이 들었다. 연주를 마친 후 객석 전원이 기립하여 노 지휘자의 열정에 박수를 치는 모습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1 95세의 현역 지휘자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2 전임지휘자 마리스 안손스의 두상 3 오슬로 콘서트홀의 대형 파이프 오르간

대안문화와 독립예술의
거점이 되다

호로인디아트홀

박나무 자유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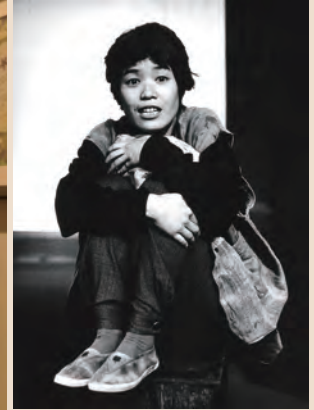


지나간 어느 날, 우리집 아이가 연극을 하고 싶다고 했다. 배우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고서 덤벼트면 싶었다. 그래서 부산KBS가 방영했던 다큐멘터리 <나는 연극배우다>를 보여주었다. '경력 15년차 배우의 월수입이 23만원'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되는 그 영상에는 연극이라는 고단한 직업을 이어가기 위한 단원들의 고군분투가 그려져 있다. 아이는 그걸 보고나서 오히려 더 연극이 하고 싶어졌던 것 같다. 재물보다 가치에 열정을 쏟는 배우들의 모습이 더 크게 마음에 와 닿았겠지. 아이의 선택은 존중되었고, 열심히 관련한 아카데미도 수강하고 좋은 평도 받으며, 한참을 준비했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서인지 진로를 바꿨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 때 그 영상의 주인공은 당시 창단 25주년을 맞았던 극단새벽의 단원들이었다.

1984년 두레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내년이면 창단 40주년을 맞는 극단새벽이 드디어 연산동에 잡은 터에 '호로인디아트홀'을 올렸다. 서면에서 시작해 동래를 거쳐, 광복로에 갔다가 민락동을 지나 드디어 정착하게 된 것 터전을 옮길 때마다 공연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야 했지만, 또 지낼만하다 싶으면 쫓겨나는 게 집 없는 자의 운명.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안정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꿈이 자랐고, 계획을 세웠으나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 추진하기를 거듭하다가 2016년 5월에서야 부지를 매입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난 2022년 1월 첫 삽을 뜨게 되었고, 우여와 곡절을 거친 끝에 3층 규모의 아트홀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대출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후원금과 단원들의 출자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공간이자 사회적 자산이다.



시민들의 후원금과 단원들의 출자금으로 마련된 호로인디아트홀이 지난 4월 22일 개관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 효로인디아트홀은 극단새벽 창단멤버
故윤명숙의 별호였던 효로(曉露, 새벽
이슬)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 개관기념전 '너희를 담은 시간'이 열리
고 있는 <기억의 방>.

1층은 '기억의 방'. 개관기념전시로는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그리움을 꼭꼭 눌러 만든 꽃누르미 작품들이 전시된다. 아이들의 얼굴, 가방, 책들이 꽃잎으로 다시 태어나고,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담은 글들이 그 위에 얹혀 있다. 기억의 방에서는 이렇듯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들을 중심으로 기획할 예정인데, '대안문화연대'라는 시민동아리에 운영을 맡긴다. 2층은 극단새벽의 연극전용극장으로 만들어진 104석의 효로소극장. 기존 건물에 극장을 옥여넣은 게 아니라 설계 단계서부터 단원들의 욕심이 들어갔으니, 거기에 담길 공연에 기대가 쏠린다. 3층은 교육장과 연습실, 그리고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7층 규모로 만들고자 했던 당초의 계획에는 못미치지만, 있어야 할 것은 딱 갖춘 단단한 건물이 되었다. 건물 건축은 건설사가 맡았지만, 실내는 모두 단원들과 대안문화연대 회원들의 손으로 꼼꼼하게 마무리했다. 피와 땀과 눈물로 바닥을 깔고, 천정을 엮고, 벽을 세웠다.

“많은 분들이 ‘드디어 건물을 지었다’고 축하와 격려, 혹은 질서를 보내지만 그건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들이다. 처음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빚으로 시작된 일이다. 이제는 월세가 아니라 은행의 고금리와 세금에 쫓기게 생겼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부터 독립해 예술가와 수용자들이 예술의 내용과 방향

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업이 겨우 시작단계인데, 넘어야 할 높은 산이 한 돌이 아니다” 이성민 상임연출의 말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건물주나 은행이나 엄혹하기는 마찬가지다. 냉정하기로는 어쩌면 은행이 더할지도 모른다. 창단 이래 늘 그래왔듯 불의에 굽히지 않고 약자를 대변하는 극단새벽의 역할은 현재진행형이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효로인디아트홀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몫. 갤러리에 들르고, 공연을 관람하는 일, 천원이든 만원이든 후원금으로 새벽지가 되는 것, 후원의 메뉴는 다양하다. 결국은 연극배우의 길을 걷지 않게 된 아이에게도 대안문화와 독립예술의 지원군이 되어보는 건 어떨는지 권해봐야겠다.



문의 효로인디아트홀 051-623-6232, [instagram.com/hyoro_theater](https://www.instagram.com/hyoro_theater)
(지하철 3호선 배산역 2번 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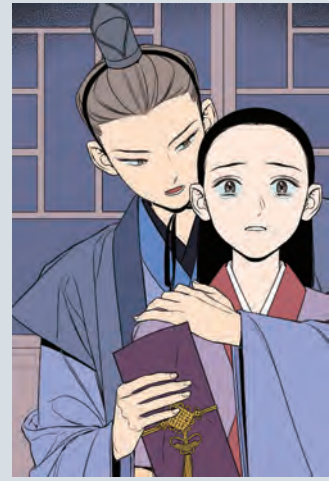
창극 <정년이> 돌풍 ... 풍성한 여성서사의 매력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올봄 최고 화제작은 단연 국립창극단의 <정년이>다. 국립극장은 국립창극단 <정년이> 티켓(8회)이 조기 매진되자 3회를 추가했지만 이마저 바로 매진되는 바람에 한동안 티켓 문의 요청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10여 년간 그리스 비극, 중국 경극, 오페라, 구전설화 등 다양한 소재를 창극화하며 인기있는 단체로 탈바꿈한 국립창극단이지만 이번 <정년이> 열풍은 유난히 뜨거웠다. 아무래도 20~30대 여성의 팬덤이 강한 인기 동명 웹툰을 무대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의 원천소스가 되고 있지만, 창극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정년이>가 처음이다.

서이레-나문 작가가 2019년 4월~2022년 5월 네이버에 연재한 웹툰 <정년이>는 여성국극이 전성기였던 1956년 목포 소녀 윤정년이 서울의 매란국극단에 들어와 좌충우돌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부자가 되고 싶어 국극단에 입단한 정년이는 동료 단원들과 생활하며 국극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것은 물론 좋은 작품을 위해 주·조연 모두 하나로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정년이를 포함해 다양한 등장인물들은 각각의 욕망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갈등을 겪지만, 여성국극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국극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여성만으로 구성된 창극을 지칭한다. 여성 소리꾼들이 남성 중심의 국악계에 반발해 1948년 '여성국악동호회'를 결성하면서 태동한 여성국극은 1950년대 전성기를 맞이했다. 고되고 궁핍했던 당시 여성국극은 화려한 스펙터클과 낭만적인 로맨스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다. 기존 혼성창극이 판소리 다섯 마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여성국극은 설화나 역사에 뿌리를 둔 창작극부터 외국 문학을 한국 상고사 배경으로 각색한 작품까지 다양한 레퍼토리



웹툰 <정년이> © 네이버웹툰_글 서이레, 그림 나문

를 자랑했다. 또한, 화려한 의상과 무대장치 그리고 무용 등으로 극적인 요소를 강화해 관객을 매료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던 시절 여성들만의 예술 장르인 여성국극이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은 특별하다. 특히 '왕자가 사라진 시대의 왕자'인 남역(男役) 배우들은 소위 '사생팬'을 달고 다니는 요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1950년대 말부터 영화와 텔레비전이 빠르게 보급되자 여성국극은 시대 감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급속히 쇠퇴했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 '진정한 창극을 파괴한 기이한 통속 예술'로 폄훼된 여성국극은 전통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1962년 설립된 국립창극단의 전신 국립국극단이 남녀 혼성창극만을 인정하면서 1950년대 16개까지 만들어졌던 여성국극 단체는 점차 자취를 감췄다. 일본에서 미혼여성만으로 이뤄진 다카라즈카 가극단이 1913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인기를 구가하며 학교까지 만들어 단원 양성을 해온 것과 대조된다.

후대를 양성하지 못해 사실상 사라진 장르가 된 여성국극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990년대. 당시 대학가에서 페미니즘과 문화운동의 세례를 받은 여성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국극을 다룬



국립창극단 <정년이> © 국립극장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젠더 문제에 천착해온 미디어아티스트 정은영이 2008년부터 진행한 <여성국극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정은영은 여성국극 소외의 역사를 추적하는 한편 젠더 정치학에 기반한 퍼포먼스를 잇달아 선보였다. 그리고 2013년 김혜정 감독의 다큐멘터리 <왕자가 된 소녀들>, 2019년 드랙킹 콘테스트 기획단의 퍼포먼스 <드랙>여성국극: 춘향전, 2022년 여성국극제작소의 <삼질의 히어로> 등이 여성국극을 다뤄 주목을 받았다.

만화 분야에서는 웹툰 <정년이>가 여성국극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특히 웹툰 <정년이>는 '2020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을 받는 등 연재 내내 바람직한 여성 서사의 사례로 주목 받았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서사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소수자성을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많은 대중문화 서사에서 '여성의 적은 여성'으로서 이상한 악녀들이 등장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 없다. 여기에 숏컷에 바지 차림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남성을 연기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웹툰 <정년이>가 강렬한 여성서사라는 호평을 받은 만큼 창극 <정년이>의 주요 창작진도 여성으로 꾸러졌다. 남인우가 연출 및 김민정과 공동으로 대본에 참여했으며, 이자람이 작창을 맡았다. 또한 창극 <정년이>는 국립창극단의 역대 작품들 가운데서도 여성 단원들의 비중이 가

장 컸다. 출연진(창악부) 17명 가운데 여성 단원이 14명이나 되는 만큼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여성 단원들의 소리를 골고루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국립창극단은 <정년이> 오디션 과정에서 한 남성 단원의 아이디어로 원작의 여성 역을 남성 단원이 맡음으로써 원작의 젠더 담론을 새롭게 실천했다. 그런데, 공연을 앞두고 남성 단원이 여성 역할을 맡는 것이 창작진 인터뷰에서 공개된 후 웹툰 팬들의 항의전화가 국립극장에 쇄도하고 매일 폭탄이 해당 역할을 맡은 남성 단원에게 쏟아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련의 해프닝 속에 개막한 창극 <정년이>는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대체로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여성국극과 창극이 장르적으로 잘 맞은 데다 그동안 잘 몰랐던 국립창극단 여성 단원들의 매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137화에 이르는 웹툰에 담긴 방대한 이야기를 2시간이 채 안 되는 무대 언어로 압축하려다 보니 이야기가 험거워졌다. 아무래도 정년의 성장기 중심으로 서사를 풀다 보니 각 캐릭터의 세부 묘사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국립창극단은 앞으로 초연의 아쉬움을 재연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풀어낼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창극 <정년이> 공연 이후 남성 단원이 여성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논란은 사라진 듯하다. 공연을 실제로 보면 여성국극의 젠더 전복성을 오히려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여성국극을 지금에 와서 재현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성국극은 이제 젊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년이>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에서 여성국극을 다룬 작품들은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경계를 용감하게 넘어섰던 여성국극의 정신을 오늘날 잇는 것으로 보인다.

INVITATION TO THE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옴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ARTS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매년 가슴 따뜻한 선율과 함께 선물처럼 찾아오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5월 26일 부산시민회관 무대에 선다.**

‘내 피아노는 시속 60km, 인생도 천천히, 무리하지 않는다’며 일상 속에서 위안과 힐링을 안겨주는 유키 구라모토는 대학에서 응용물리학을 전공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음악가와 학자의 길을 놓고 고민하다 결국 음악을 택한 그는 연주는 물론 클래식 작곡과 편곡, 그리고 팝 음악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986년 발표한 첫 피아노 솔로 앨범인 ‘레이크 미스티 블루(Lake Misty Blue)’에서 ‘레이크 루이스’가 크게 히트하면서 주목받았고 뉴에이지 앨범임에도 10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1998년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제작된 ‘Refinement’는 높은 음악성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그를 아티스트 반열에 올렸다.

올해로 내한 24주년을 맞은 유키 구라모토는 지난 1999년 첫 내한 공연이 매진을 기록한 이후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공연과 음반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다. 2009년 3월과 11월에는 한국 공연 데뷔 10주년을, 2019년에는 공연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서정적이면서 감성적이며, 낭만적인 그

의 음악은 모든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데, 그가 그동안 녹음했거나 연주한 곡은 360여 곡에 이른다. 특히 3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Lake Louise’를 비롯해 한국 영화 ‘달콤한 인생’의 타이틀곡으로 유명한 ‘Romance’,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Meditation’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솔로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첼리스트 이윤하, 플루티스트 한지은, 클라리네티스트 강신일로 구성된 콰르텟과의 연주로 진행된다. ‘청중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평을 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은 현재 아르츠 오케스트라 및 디토 오케스트라 단장, TIMF 앙상블, 화음챔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며, 첼리스트 이윤하는 대구콘서트하우스의 WOS 비르투오소 챔버 수석, 앙상블 동성, 앙상블 D, 경북도립교향악단 객원 수석으로 있다. 플루티스트 한지은은 현재 Dolce Powell Artist로 활동하며 ‘스튜디오공작’의 멤버로 유튜브 채널 ‘월요 클래식’의 진행을 맡고 있으며, 차세대 클라리네티스트 강신일은 현재 서울클라리넷 앙상블 단원으로 있으며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팬들에게 반가운 오리지널 명곡을 콰르텟 4인조의 연주로 한층 깊고 풍부하게 편곡된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일 시 5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9회 정기연주회 Insight Music: 통찰의 시간



◆ **국악관현악의 미래를 이끄는 KBS국악관현악단의 최연소 상임지휘자 박상후가 객원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9회 정기연주회가 5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Insight Music: 통찰의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높은 예술성을 지닌 다섯 곡의 국악관현악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강렬한 음향적 에너지를 체험하고 자기발견과 지적, 예술적 탐구에 영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지휘자 박상후는 중앙대학교 국악관현악 지휘 전공 1세대로 학부를 졸업한 후 독일 함부르크 브람스 음악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했다. 귀국 후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창극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전주시립국악단 등을 객원지휘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최근까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지휘자로 활동했다. 박상후는 국악관현악의 초기 작품부터 현대음악어법에 기반한 최근의 작품들까지 폭넓은 레퍼토리와 더불어 명료한 음악 해석과 뛰어난 바톤 테크닉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으로는 조선 후기 진경 산수화를 대표하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에 감명받아 작곡한 김준호 곡 ‘인왕제색도’로, 안개, 나무의 흔들림, 새들의 합창, 웅장한 인왕산, 그리고 안개와 구름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햇빛을 ‘A-B-C-D-A’의 형식 안에 표현한 곡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 부수석 방병원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해금협주곡 ‘Verses’는 하와이대 작곡과 교수인 토마스 오스본이 송익필, 신숙주, 김동연 등 조선 시대 문장가 3명의 시조를 모티브로 작곡한 곡으로, 풍성한 리듬감과 특유의 장식음 등이 하모니를 이루고, 애잔한 해금 선율과 다양한 기교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2022년 성남시립국악단의 위촉, 초연곡인 장식진 곡 ‘파도(波濤): 물의 춤’은 바다의 거대함과 고요의 순간을 그린 작품으로, 확장된 음향과 디테일한 음의 표현이 교차하는 흐름을 작품 속에 담았다.

이어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수석 손한별의 협연으로 작곡가 김대성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아픔과 분노,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 작곡한 대금협주곡 ‘꽃잎’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으로는 강서대묘의 벽화 ‘사신도’를 음악적 소재로 작곡한 곡으로, 벽화에 표현된 민족적 기상과 예술적 혼을 담은 김성국 곡의 ‘영원한 제국’을 연주한다.

일 시 5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무용단 제87회 정기공연
1002 Nights_천 두번 째의 밤



◆ **1973년 2월 25일,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한 후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무용단이 2023년 첫 정기공연으로 ‘1002 Nights_천 두번 째의 밤’을 무대에 올린다.**

창단 후 우리 전통춤을 계승, 발전시키고 끊임없는 창의력으로 부산은 물론 한국 무용계를 주도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은 그동안 우리의 전통춤 역동적이면서도 신명나는 춤사위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는 한국무용계 간판스타로,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며 선·후대를 아우르는 위치에서 탁월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정윤 예술감독과 함께 한국춤의 정통성과 국제적인 감각으로 동시대를 아우르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춤 콘텐츠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창단일인 지난 2월 25일 무용단 5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념하고 자축하는 특별한 무대 ‘The 50_Time to Dance’를 개최,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던 부산시립무용단은 이번 정기공연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업으로 제작되는 특별한 무대 ‘1002 Nights_천 두번 째의 밤’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페르시아 시대의 설화를 기반으로 이슬람 문화 각지의 구전문학과 설

화들이 정리된, 이슬람 문학의 보물이라 불리는 ‘아라비안 나이트(천일야화)’를 모티브로 창·제작된 작품으로,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와 공간적 배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우리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정윤 예술감독은 모험과 사랑, 축제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표현하는 4개의 오페라 형식의 시리즈로 작품을 구성하고 미디어아트와 미적 배경과 극적 효과를 통해 무용의 주제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극대화시켰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최수열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이번 작품의 배경음악이 되는 린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를 라이브로 연주한다. ‘천일야화’를 바탕으로 작곡된 ‘세헤라자데’는 작품 속 4가지 에피소드(4악장)로 구성된 관현악 모음곡으로, 린스키 코르사코프 특유의 색채감 넘치는 오케스트레이션과 흥미로운 선율, 부드러운 동양적 풍미 등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이번 정기공연 ‘1002 Nights_천 두번 째의 밤’을 비롯하여 올 한해 창단 50주년의 의미와 철학을 담은 다양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일 시 5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4: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5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무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같은 달에 몰려있다. 그래서일까 어느 한 시인은 5월을 두고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으로 더 행복한 5월’이라 노래했다.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가족과의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5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 오전 11:00 꿈꾸는 예술학교 단체관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1만원(연령 제한 없음)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세상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준비한 어린이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우리아이음악회’가 5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고 아나운서 최혜윤이 진행하는 이번 무대는 아이들이 클래식 공연과 친숙해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클로드 드뷔시(C. Debussy)가 그의 어린 딸을 위해 작곡한 ‘어린이 차지(Children’s corner)’, 그리고 음악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수록되는 생상(C. Saint-Saëns)의 ‘동물의 사육제(Le Carnaval des animaux)’가 연주된다.

보통 ‘어린이 차지’라고 번역되는 드뷔시의 ‘Children’s corner’는 ‘어린이가 차지한 땅’, ‘어린이의 영역’을 뜻한다. 그의 딸이 세살배기였을 때 작곡된 이 소품 모음곡은 모두 여섯 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는 피아노 독주를 위한 곡으로 작곡되었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작곡가의 친구였던 카플레(A. Caplet)의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으로 무대에 오른다.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는 주로 동물을 포함한 주제로 작곡된 총 14개의 간단한 악장들로 이루어진 모음곡이다. 생상의 재치와 유머가 과감히 발휘된 작품으로, 본래는 작은 실내악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되었다. 오늘날에는 확대된 현악기 편성을 대동한 오케스트라로 자주 연주된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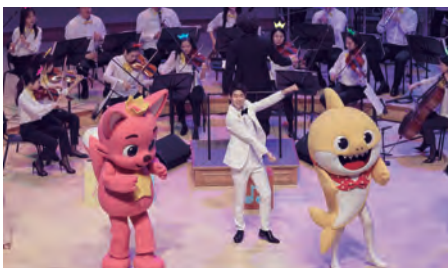
핑크퐁 클래식나라_뽀띠를 찾아라

5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



대부분 클래식 공연의 관람 가능나이는 7세 이상이다. 이런 우리아이를 위한 첫 번째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나라_뽀띠를 찾아라’가 5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대한민국 대표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무대로, ‘클래식은 지루하다’라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로 가깝게 다가간다. 핑크퐁은 어린이 교육용 앱에서 시작된 애니메이션, 동요, 게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운영하는 대표 브랜드이다. 특히 ‘아기상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와 더핑크퐁컴퍼니(주)가 ‘아기상어 고향 부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부산에서는 더욱 친숙한 캐릭터가 되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핑크퐁 동요와 더불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사자왕의 생일 파티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뚜띠(Tutti)’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핑크퐁과 아기상어,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라데초키 행진곡’, ‘동물의 사육제’, ‘왕벌의 비행’ 등 도입부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친근한 클래식 음악들과 더불어 핑크퐁의 대표 동요 ‘아기상어’, ‘티라노 사우르스’, ‘뽕뽕 응가 체조’ 등을 특별한 편곡으로 들려준다. 특히 탄탄한 실력과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사랑받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핑크퐁과 함께 모험을 떠나며, 김영랑 지휘자가 이끄는 바쁘르 오케스트라가 어린이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한다.

어린이날 주간엔 만나는 가족극

어린이 전용극장인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는 부산시립극단의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가 무대에 오른다. 사랑채극장은 지난 2017년 기존의 소극장을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공간으로, 그동안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관객과 만나왔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미운오리새끼’는 2021년 9월,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올러진 후 그동안 수차례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미운오리새끼’는 오리 무리 속에 섞인 유난히 크고 못생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무리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다가 우연히 자신이 오리가 아닌 아름다운 백조임을 알게 되면서 백조의 무리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산시립극단은 원작이 가진 여러 다양한 해석 중에서도 전통적 해석 중 하나인 ‘자아찾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인 ‘미운오리새끼’는 ‘미운오리’에서 환골탈태하여 ‘백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조이면서 오리’인 존재로 남는다.

어린이날 주간인 5월 4일과 5일에는 부산시립합창단의 가족음악극 ‘옛날 옛적에’를 만날 수 있다. ‘옛날 옛적에’는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 달님’, ‘선녀와 나무꾼’ 등 두 편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창작음악극으로,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져 기존 합창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고 작곡가 이진실이 작곡 및 시놉시스를 맡아 중심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2310밴드의 대표 이삼열이 편곡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음악극으로서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가 연주를 맡았으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김소민, 손지우가 출연하여 극적 재미를 더해준다.

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연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5월 3일(수)-28일(일)

평일 단체공연, 공휴일·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전석 1만2천원(연령 제한 없음)



부산시립합창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전래동화에 의한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5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5일 금요일 오전 11:00

※ 5월 4일 10:30 꿈꾸는 예술학교 단체관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가능)



‘집’의 의미에 대한 미완의 성찰

부산시립극단 제74회 정기공연 ‘집집: 하우스 소나타’

◆ 허은 전 경성대학교 연극과 교수, 연극평론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집’의 의미는 이미 고전적 해석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동시대에 있어 집은 가정의 행복이나 한 가족을 편히 쉴 수 있게 하는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이라기보다 욕망과 모순 그리고 불안이 뒤엉키면서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이자 최고의 보험으로 인식된다.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열창하는 것은 어리석고 덜떨어진 객기일 뿐이다. 최근에 불어 닥친 부동산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과 이를 통한 사회 분열의 양상은 ‘아파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욱 심화된다. 이 속에서 욕망의 공간을 가지기 위한 박정금(이현주)과 연미진(염미선) 두 사람의 노력은 일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보편적 정의도 없는 편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입주 조건을 변칙적으로 구성하여 입주에 성공했기에 사실이 밝혀지면 퇴거하나 법적책임도 질 수 있다는 불안과 늘 함께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들의 행동이 현실적으로는 이해된다. 그러나 또 다른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 상황은 두 사람의 불안을 지배하는 근본요인이 된다. ‘세상이 그러니까’라는 변명이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맹렬한 사회비판적 안목을 가진 특별한 작가가 아니라도 한 번쯤은 이런 세상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고 싶을 것이다.

이 극의 작가 한현주는 한국 연극 평론가 협회에서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에 오르기도 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의 창작산실 희곡으로 선정되어 작가적 역량을 검증받았다. 작가는 우리의 보편적 울분을 작품 속에 담아낸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오늘날의 이 거대하고 모순덩어리인 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체험을 바탕으로 조용히 해부의 칼날을 들이댄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관객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고 현실감 있게 다가간다.

집이라는 단어가 겹쳐지는 ‘집집’이라는 제목이 말하듯이 내 집에 대한 일반적 욕망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두 사람의 집에 대한 욕망을 나타낸다. 부제(副題) ‘하우스 소나타’는 이 음악 형식의 특징 중의 하나인 주제의 반복과 중첩이라는 형식을 암시한다. 서민층을 위한 국민 공공임대 아파트 603호는 2002년의 이 아파트 입주민인 박정금과 2022년에 같은 호수에 입주한 임대 아파트 신혼부부 연미진과 이성근(서보기)의 상황이 20년의 격차를 두고 사건과 의식이 중첩되고 교차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부산시립극단의 객원 연출(주혜자)이 이 희곡을 무대에 형상화시켰다. 연출이 이 연극 주제나 서사에 대하여 공감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희곡 ‘집집’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조용히 무대에 옮겨 놓고 있다. 특별한 연출의 형식이나 기대했던 창의적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희곡의 재연이라는 연출의 일차적 미학원리는 지켜진다. 희곡의 재해석이라는 또 다른 연출 미학 없이 무대는 순진하고 조용히 만들어졌다. 그것도 너무 조용하게. 너무 조용해서 평범해 보인다.

사실 무대가 보이는 순간부터 공연공간을 지배하는 웅한 느낌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의 무대가 이 작품의 주제 전달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했다. ‘10평이 채 되지 않는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이미지는 이 연극이 끝날 때까지 찾아볼 수 없다. 20년의 시차를 두고 이 공간을 가지게 된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읽어 가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비능률적이었다. 집에 대한 서민의 욕망과 불안이 압축된 공간이라기보다 단지 장소를 지시하는 물리적 공간이며 희곡이 제시한 공간을 친절하고 단순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복도식 임대 아파트라는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다.

이 작은 공간을 소유하기 위한 욕망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 가진 욕망의 최소 단위다. 연출은 희곡이 제시하고 있는 공간을 더 치밀하게 해석하고 시각화시킬 정교한 계획이 필요했었다. 무대 뒤에 버티고 있는 임대 아파트의 거대한 위용(?)은 작가가 의도했던 욕망의 블록으로 이미지화되기엔 거리가 있다. 시각적으로 부족하기도 했고 무대공간을 채우기 위한 단순 장치에 머문 감이 있다. 2002년의 이 공간과 2022년의 이 공간이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명이나 음향과 연기자 동선의 보다 세밀한 계산이 필요했다.

아파트의 야외공간 설정 역시 혼란스럽다. 603호 아파트의 베란다로 설정된 공간의 모서리가 야외공간에서의 연기 공간과 느닷없이 중첩되면서 공연 형식의 일관성에 대한 혼란도 왔다. 특히 603호를 드나드는 과거와 현재의 인물 그리고 방문자가 등, 퇴장할 때의 타이밍은 더 정교하게 연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된 등장인물의 성격 구축 역시 너무 평면적이어서 극적 재미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2000년 난지도에 무허가 집을 짓고 살던 박정금과 2022년 같은 아파트 같은 공간 603호에 친구의 도움으로 불법 입주한 신혼의 연미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욕망과 불안이 이들 연기자를 통해서 지속해

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격화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이들이 고유한 성격으로 재창조될 수 있었다라면 연극적 재미와 더불어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다소 희극적 인물로 등장하는 동네 이웃 아주머니(이혁우) 역시 극 속에 녹아들지 못하고 걸돈다. 희극적 묘미를 살리기 위해 여성으로 등장하는 여장 남배우의 연기는 희극적이라기보다 거의 슬랩스틱에 머문다. 그렇게 설정한 연출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해 보인다. 관객을 웃기는 재미있는 인물이면 모두 용서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인물로서의 최소한의 성격화가 부족해 보인다. 이 인물 외에도 아파트를 통해서 흔히 발견되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데 이 또한 극의 흐름 속에서 제 몫을 담당했는지 의문이다.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성격화된 인물로서 등장할 때 갈등을 더 첨예화시키는 촉매로서의 보조 인물로 탄생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부동산 관련 방송 장면은 그나마 이 작품의 의미나 주제를 명확하면서도 쉽게 엿볼 수 있게 한 부분으로 보인다. 적은 분량이지만 이 장면을 만들어간 연기자나 연출의 설정에 힘입어 차치 조용한 재연으로 그칠 뻔한 연극에서 관객의 역동적이며 비판적 참여의 즐거움을 일부 만들어 주었다. 연극은 관객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미학원리가 나뉘므로 지켜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공연이 끝난 후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의 젊은 관객이 조용히 주고받은 말이 생각난다. “연극이 참 어려워. 아주 철학적이야.” “해석을 한참 해야겠네. 어려워” 과연 그럴까?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일 시 | 5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5일 금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3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진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부산시립합창단의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이번 무대는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 달님', '선녀와 나무꾼' 두 편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창작음악극으로,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져 기존 합창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고 작곡가 이진실이 작곡 및 시놉시스를 맡아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가 연주를 맡아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한국예술가곡협회 창립기념음악회
노래에 그리움을 싣고**

일 시 | 5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국예술가곡협회 010-9550-4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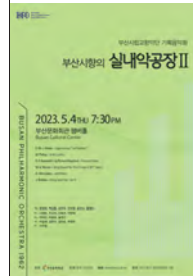
한국의 예술가곡을 널리 보급하고 늘어나는 가곡 애호가들에게 양질의 가곡지도와 발표무대를 통해 한국예술가곡의 저변확대에 힘쓰고자 결성된 한국예술가곡협회 창립기념음악회.

- 소프라노/이은미(회장), 변향숙, 전희영, 이수진, 정애린, 최화숙, 박해미(총무)
- 메조소프라노/강희영
- 테너/조성흠
- 바리톤/채범석, 이성영, 김태형
- 피아노/최성근, 진승민
- 찬조출연/김미숙, 이서영, 사대부고동문합창단(지휘/채범석), 예그린합창단(지휘/손욱)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방II**

일 시 | 5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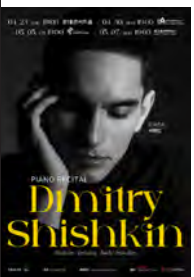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향의 실내악공방II'.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름다운 봄의 정취와 잘 어울리는 모차르트 현악사중주 '봄'을 비롯해 호른양상블, 플루트-첼로 듀오, 현악6중주 등 온 가족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베버/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사냥꾼의 합창'
모차르트/현악사중주 제14번 작품 10 '봄'
브람스/현악6중주 제1번 작품 18 등

**2023 드미트리 시슈킨
내한피아노 리사이틀 with 또모**

일 시 | 5월 5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또모 02-540-2706



타고난 음악적 섬세함과 예술성을 지닌 피아니스트로, 국내에서는 유튜브 클래식채널 또모를 통해 한국팬들과 친숙한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시슈킨 부산공연. 음악가였던 어머니에 의해 2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한 드미트리 시슈킨은 2013년 부소니 콩쿠르를 시작으로 2015년 쇼팽 국제콩쿠르 6위, 2018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 1위에 이어 2019년에는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2위 입상하여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드미트리 시슈킨은 지난 2020년 첫 내한공연을 통해 폭발적인 연주력으로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6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3815-3190



지난 1990년 제갈삼 명예교수에 의해 창단된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64번째 정기연주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들이 2회에 나누어 피아노 듀오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 **오후 3:00** 이동섭, 조현선, 김성숙, 김소형, 이소진, 박필은, 김진희, 심하정, 김해리, 김은정, 김민주, 최진현
- **오후 7:30** 김미희, 조미지, 권유희, 이수은, 김정희, 이지은, 서주옥, 강하나, 김문주, 김지민, 채희정, 박지은, 김선화, 박은정

**IPB 실내악 연주 시리즈
French Connection**

일 시 | 5월 6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IPB 070-8018-8303



부산 경남이 자랑하는 챔버 오케스트라로, 국내 최고의 앙상블로 발돋움하고 있는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의 실내악 연주 시리즈. 베르사유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도트리쿠와 니스국 제실내악페스티벌 음악감독인 피아니스트 니콜라 브랑기에, IPB 음악감독이자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양육진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니콜라 도트리쿠, 니콜라 브랑기에의 솔로 연주가 펼쳐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제2번'을 세 연주자가 들려준다.

프로그램
드보르작/로망스
리스트/오베르만의 끝까지
라흐마니노프/로망스와 헝가리무곡 등

바리톤 하병욱 독창회

일 시 | 5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하병욱 950-6564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교수이자 한국성악가협회 이사로서 있는 바리톤 하병욱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파르마 국립음악원과 파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오페라), 밀라노 도니젠티

아카데미(뮤지컬)를 졸업한 하병욱은 이태리 리냐노 샤피아도로 국제콩쿠르 2위, 이태리 안젤리카 카탈리니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하병욱은 1992년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으로 오페라 데뷔무대를 가진 후 그동안 다수 오페라 주역 및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레스피기, 이베르, 김현옥, 코플랜드의 주요 가곡과 리처드 로저스의 뮤지컬 '남태평양' 넘버를 들려준다.

- 피아노/김경미 • 콘서트가이드/김성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생명나눔 음악회

일 시 | 5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사)한국장기기증협회 635-1001



부산을 중심으로 장기기증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한국장기기증협회가 마련하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생명나눔 음악회.

지난 2011년 설립 후 국내 장기기증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온 (사)한국장기기증협회는 그동안 '장기이식 허브, 부산'이라는 목표로 아시아장기이식관 리센터 설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부산지역의 음악가들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테너 안민
- 색소폰/심삼중 이성관 • 트럼본/이한진
- 메조소프라노/정진희
- 바리톤/김성결, 최판수
- 소프라노/정은미 • 피아노/최여진

2023 부산교문청소년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일 시 | 5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6

2006년 전국시도 교육청 최초로 창단된 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2023년 특별연주회. 창단 후 시인 속으로 찾아가는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성장해온 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경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이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인 백진현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에브게니 오제넨' 중 '폴로네이즈', '백조의 호수' 모음곡과 함께 로사우로의 '마림바협주곡 제1번', 부르흐의 '바이올린협주곡 제1번'을 단원 협연으로 들려준다.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마스터 클래스 타이일러 라쉬

일 시 | 5월 13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JTBC 방송 '비정상회담'에 미국 패널로 출연하며 방송에 데뷔한 후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 타이일러 라쉬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기후위기, 내 삶의 위기, 내 사람의 위기'라는 주제로 현대

사회 기후위기의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좌에 앞서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임홍균과 첼로수석 이일세가 클리예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중 2악장 '가보트'와 4악장 '칸초네'를 들려준다.

제8회 벨라무지카 정기연주회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

일 시 | 5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벨라무지카 010-5520-8728



고신대학교 동문으로 석사 이상 유학파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벨라무지카 정기연주회.

이태리어로 '아름다운 (bella)'과 '음악(musica)'의 합성어인 벨라무지카는 지난 2014년 3월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라는 테마로 우리에게 친숙한 오페라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성악가의 노래로 들려준다.

- 연주/김미영, 강현아, 조성희, 류희영, 이은진, 김효빈, 최선경, 임예주, 손예은, 정가희, 최폴린
- 소프라노/ 박현진 • 테너/김준연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5회 음악정기연주

일 시 | 5월 17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 514-1232



우리나라 예술 문화의 주역이 될 창의적 예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부산예술고등학교가 매년 그동안 뒀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음악전공자들이 관현

악 연주에서부터 합창, 기악 및 성악 솔로, 협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쇼팽/폴로네이즈-판타지 내림가장조 작품 61
 라흐마니노프/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타란텔라'
 박정미/기타림은 꽃이 되어
 도니제티/오페라 '돈 파스칼레' 중 '기사의 뜨거운 눈길'
 바그너/오페라 '탄호이저' 서곡 등

- 관현악지휘/오창록
- 합창지휘/김성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9회 정기연주회 Insight Music: 통찰의 시간

일 시 | 5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KBS국악관현악단의 최연소 상임지휘자 박상후가 객원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9회 정기연주회.

‘Insight Music: 통찰의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높은 예술성을 지닌 다섯 곡의

국악관현악 작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김준호/인양제색도
- 토마스 오스본/해금협주곡 ‘Verses’
- 장석진/파도(波濤)·물의 춤
- 김대성/대금협주곡 ‘꽃’
- 김성국/영원한 제국
- 지휘/박상후 • 해금/방병원(해금 부수석)
- 대금/손환별(대금 수석)

임재홍의 Eight Seasons

일 시 | 5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가온클래식 070-8811-0513



원숙한 음악성과 인간애의 조화로 예술혼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의 무대.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코리안 챔버오케스트라 악장, BCMS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임재홍은 클래식 전문 음악

유튜브 채널 jaehong TV Violin Playground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비발디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의 필수 레퍼토리인 ‘사계’ 전악장과 20세기 탱고음악의 거장 피아졸라의 ‘사계’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바이올린/김유리, 남이랑, 최종완, 장진선
- 비올라/강수이, 나윤채
- 첼로/이동열, 정지은
- 더블베이스/박지수 • 챔발로/김정은
- 피아노/김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일 시 | 5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연령 제한 없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클래식과 친숙

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딸바보’라 불리는 드뷔시가 그의 어린 딸을 위해 작곡한 ‘어린이 차치(Children’s corner)’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등 작곡가가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두 곡을 들려준다.

- 지휘/백승현(부지휘자)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5회 국악정기연주

일 시 | 5월 19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 514-1232



우리나라 예술 문화의 주역이 될 창의적 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부산예술고등학교가 매년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국악정기연주회.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국악전공자들이 정악합주에서부터 가야금 독주, 모듬복합주, 관현악합주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 정악 합주 ‘만파정식지곡’, 가야금 독주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모듬복합주 ‘타(打)(이경섭 곡), 관현악 합주 ‘영웅(이영록 곡), Frontier(양방언 곡), 아름다운 나라(한태수 곡)
- 정악합주 지도/정세희
- 관현악합주 지휘/백규진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한정

일 시 | 5월 20일 토요일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명확한 해석과 음악적 균형으로 강력한 마력을 뽐내며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리사이틀 ‘한정’.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석사학위(MM)와 Graduate Diploma, 론지 음악원에서 Artist Diploma,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DMA)를 취득한 박정희는 일찍이 두각을 나타내며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2년 금호아트홀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레퍼토리로 서울과 부산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정희는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2년 금호아트홀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레퍼토리로 서울과 부산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정희는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 슈만/판타지 다장조 작품 17
- 리스트/소나타 나단조 S. 178

제21회 부산울산 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한길로 가게 하소서

일 시 | 5월 21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문 의 | 원불교 부산울산교구 245-0717



지난 1973년 원불교 부산교구 어머니합창단으로 출발, 오랜 전통을 지닌 부산울산 원음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부산울산 원음합창단은 2002년 부산세계합창올림픽 금상, 2004년 독일 브레멘 세계합창올림픽

중교음악부문 은메달, 2006년 중국 사먼 세계합창올림픽 동메달 수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팬데믹 여파로 4년만에 갖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원불교 성가를 비롯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지도교무/김오현 • 단장/이명성
- 지휘/이은정 • 피아노/조은지
- 특별출연/From May, 원사운드 그린하모니, 聖歌神 중창단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68회 감성 콘서트 세계 부부의 날 기념 사랑

일 시 | 5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문 의 |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7787-3086



지난 2002년 ‘문화가 있어 아름답고 음악으로 행복한 사회’라는 취지로 부산의 젊은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메소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감성콘서트.

그동안 장르와 연주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의 감성을 깨워온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지휘자 손영채의 해설로 기악에서부터 성악, 가요, 가야금연주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음악감독, 지휘/손영채
- 바이올린/문수경
- 테너/박성백, 김지현
- Voce di La Boheme/소프라노 박지은, 신하람, 김보민
- 가야금병창/박현주 • 가수/서우리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3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 시 | 5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우수단원과 지역의 실력있는 차세대 연주자들에게 다양한 무대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음악을 선도할 대표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2023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지난 3월 8일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5명의 연주자들이 수석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함께 무대에 선다.

- 지휘/백승현(수석지휘자)
- 협연/윤서영(비올라), 장선아(첼로), 이승민(플루트), 김가원(바순), 김지윤(피아노)

박지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5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지은 010-5799-5890



탄탄한 연주와 진중한 성격의 피아니스트 박지은 귀국 독주회.

이번 무대는 브니엘예술중·고등학교 수석입학 및 졸업,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우등 졸업하고 도독, 원혜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 최고연주자과정, 현대음악 석사과정을 거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최고연주자과정을 전부 만점으로 졸업한 박지은이 귀국 후 부산에서 처음 갖는 무대로 스카를라티, 슈만, 리게티, 베토벤의 곡을 들려준다.

현대음악 석사과정을 거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최고연주자과정을 전부 만점으로 졸업한 박지은이 귀국 후 부산에서 처음 갖는 무대로 스카를라티, 슈만, 리게티, 베토벤의 곡을 들려준다.

제2회 부산사람이태석기념음악회

일 시 | 5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추첨 후 개별통지)
 문 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www.johnlee.or.kr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며 의술과 음악으로 인류애를 실천했던故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부산사람이태석 기념음악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장례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버리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이태석 신부는 2001년 사제서품을 받자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로 파견을 차경, 당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남수단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의료봉사로 헌신하다 지난 2010년 1월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매년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참여로 열리는 기념음악회에서는 올해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올해 미국 보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에 입단

하는 첼리스트 크리스틴 정현 리, 소프라노 김소울, 바리톤 문정현이 함께하며 그 의미를 더한다. 지휘자 오충근은 제48대 난파음악상,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했으며 현재 국립 부경대학교 석좌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 클래식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있다.

프로그램

- 드보르자크/첼로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번스타인/오페레타 ‘캔디스’ 서곡
 번스타인/오페레타 ‘캔디스’ 중 ‘화려하고 즐겁게’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전주곡 등
- 지휘, 예술감독/오충근
 - 첼로/크리스틴 정현 리
 - 바리톤/문정현 • 소프라노/김소울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50주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가정의 달에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일 시 | 5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2대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배정행과 함께 추억의 동요에서부터 부모님

과 스승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창단 5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거쳐간 단원들이 함께 출연해, 후배단원들과 호흡을 맞춘다.

- 객원지휘/배정행(제2대 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욱(전 반주자)
- 성악지도/김희정
- 안무지도/노금선(전 안무지도자)

부산시민회관

뮤지컬 복순이할배

일 시 | 5월 5일 금요일 오후 2:00, 5:3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5천원
 (이름에 복, 순 들어가면 30%, 학생 20%,
 가정의달어린이,부모님,은사님30%할인)
 문 의 | 극단 아트레볼루션 010-3946-1604



2012년 초연 후 새로운 시즌을 거듭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극단 아트레볼루션의 창작뮤지컬 '복순이할배'.
 괴짜 독거노인 복순이 할아버지의 집에 복지학과 실습생 태수가 봉사한다. 태수는 친구처럼 지내는 옛 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지혜에게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다. 태수는 복순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의미에 대해 배우려 하지만 답답하고 눈치 없는 성격 탓에 매일 혼이 나기 일쑤인데...
 감성과 사랑에 대한 표현의 중요성을 연출가 특유의 유머로 그려낸 '복순이할배'는 지난 2017년에는 서울 대학로에 진출하여 '메이드 인 부산'의 저력을 알린 바 있다.

청소년연극 자전거 여행

일 시 | 5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7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꿈꾸는 청소년은 무료
 문 의 | 극단 상상창고 010-6567-8801



주인공 혁이가 자전거 여행을 떠나 기성세대가 잃어버린 꿈과 마주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청소년극 '자전거 여행'.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을 느낀 주인공 혁이는 자전거에 간단한 짐만 싣고 여행을 나선다. 혁은 여행 도중 버스킹 댄서, 편의점 사장, 반려견을 학대하는 누나, 멀쩡하게 차려입고 떠도는 노숙자, 표리부동의 두 얼굴 레지던트와 정치인 등 이기적이고 외형에만 치우친 기성세대를 만나게 되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시·공간과 상황을 확대한 오브제극으로, 고난도의 신체기술과 얼반댄스, 랩 등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부산시립무용단 제87회 정기공연
 1002 Nights_천 두번 째의 밤

일 시 | 5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1973년 2월 25일,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한 후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무용단이 2023년 첫 정기공연으로 선보이는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업으로 제작되는 이번 무대는 이슬람 문학의 보물이라 불리는 '아라비안 나이트(천일야화)'를 모티브로 창작된 작품으로,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와 공간적 배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우리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최수열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출연, 작품의 배경음악이 되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를 연주한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핑크퐁 클래식나라뚜띠를
 찾아라

일 시 | 5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36개월 이상 관람 가능)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우리아이를 위한 첫 번째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나라뚜띠를 찾아라'. 이번 무대는 대한민국 대표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무대로, '클래식은 지루하다'라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로 가득 채워 다가가겠다.
 특히 탄탄한 실력과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사랑받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핑크퐁과 함께 모험을 떠나며, 김영랑 지휘자가 이끄는 바사르 오케스트라가 어린이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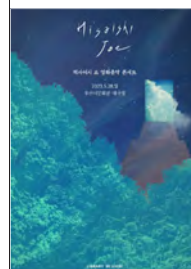
일 시 | 5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매년 가슴 따뜻한 선율과 함께 선물처럼 찾아오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올해로 내한 24주년을 맞은 유키 구라모토는 지난 1999년 첫 내한공원이 매진을 기록한 이후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공연과 음반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솔로를 비롯해 파르렛 4인조의 연주로 그의 오리지널 피아노 명곡을 한층 깊고 풍부하게 편곡된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 파르렛/김지윤(바이올린), 이윤하(첼로), 강신일(클라리넷), 한지은(플루트)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일 시 | 5월 28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주)라이브러리컴퍼니 070-4190-1289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애니메이션 작곡가 히사이시 조의 영화음악 콘서트 앙코르 무대.
 히사이시 조는 지브리 스튜디오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의 모든 애니메이션 음악을 담당할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김재원을 필두로 국내 최정상급 솔리스트들과 실내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히사이시조 컬렉션 을 감상할 수 있다.
 • 지휘/김재원 • 바이올린/김영준
 • 오보에/고관수 • 첼로/배성우
 • 연주/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오상설공연
청소년과 함께하는

윤슬타악기앙상블 초청 공연

일 시 | 5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윤슬 타악기 앙상블 초청공연.

음악을 통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전한 음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윤슬타악기앙상블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통해 타악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날을 기념해 윤슬타악기앙상블의 청소년단원들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 '1812' 서곡, 엔리코 모니코네 모음곡, 뮤지컬 OST 모음곡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지휘/이재복 • 바이올린/이명현
- 해설/문화유목민 정두환

오페라야 놀자! 비제 카르멘

일 시 | 5월 5일 금요일 오후 2: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만 4세 이상 관람, 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을숙도문화회관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오페라를 선보이는 '오페라야 놀자!' 두 번째 무대 '카르멘'.

'오페라야 놀자!'는 지난 4월, 첫 무대인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가 티켓 오픈 하루만에 매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오페라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주)사콘드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배경과 흥겨운 춤 속에 특별히 부산시 캐릭터인 갈매기 '부기'가 출연, 어린이들의 동심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2023 두레라움 토요일야외콘서트

일 시 | 5월 6일(토)-9월 2일(토)매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매주 토요일 오후에 만나 는 (재)영화의전당 야외 상설공연 '두레라움 토요일야외콘서트'.

5월에는 두레라움 윈드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부산지역의 예술단체 및 연주자들이 출연,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으로 힐링무

대를 선사한다.

6일(토)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 콘서트

- 출연/두레라움 윈드오케스트라(지휘 정두환)

13일(토) 영화속 애니메이션 국악&뮤지컬 아리아

- 출연/젊은예술 날라리와 쟁이, 테너 이태흠, 뮤지컬 가수 이하경

27일(토) 영화 속 클래식

- 출연/아티스타, 아토뮤직

게네랄파우제 5월 공연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8:00(5월은 오후 5:00),
토요일 오후 7:00

게네랄파우제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5월 무대. 게네랄파우제는 합주곡에서 '모든 악기가 일제히 쉬는 것'을 뜻하는 음악용어로, 일상생활 중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붙인 이름이다.



5일(금) 오후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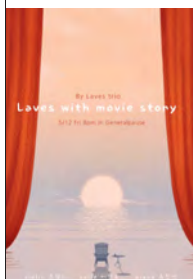
팀 에끌레토

지난 2020년 9월 창단 후 다양한 장르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온 팀 에끌레토가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에게 친숙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를 들려준다.

- 피아노/송준섭 • 바이올린/이리경, 조유리
- 비올라/이현지 • 첼로/문준수

6일(토) 오후 7:00 이달현 트리오

재즈기타리스트 이달현을 주축으로 드럼 윤혁성, 베이스 박지원이 만나 강렬한 사운드로 쾌감있는 퓨전락을 들려주는 이달현 트리오의 무대.



12일(금) 오후 8:00

라베스 트리오

깊이 있는 연주로 늘 관객과 함께하고 싶은 라베스 트리오의 무대.

라베스 트리오의 스페인어로 '동시에'라는 뜻을 지닌 'alavez'에서 따온 이름으로, 클래식의 음악적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그 공간에서 연주와 관객의 감정을 동시에 끌어내 감동을 함께 주고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라베스와 영화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주제곡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손영지 • 첼로/이강수
- 피아노/조진선

13일(토) 오후 7:00 허쉬밴드

심리상담가 김선영과 함께 관객의 사연을 받아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허쉬밴드의 특별한 재즈무대.

- 보컬/다희 • 트럼본/심규성

- 피아노/김수지나 • 베이스/황대웅
- 드럼/허여정 • 스토리, 아코디나/김선영

20일(토) 오후 7:00 최은아 트리오

30년 가까이 부산의 재즈를 지키며 노래해온 재즈보컬리스트 최은아의 따스하고 감수성 가득한 재즈트리오 무대.

- 보컬/최은아 • 피아노/장세연
- 더블베이스/신세영

26일(금) 오후 8:00 D.U. 챔버 오케스트라

동덕대학교 음악학과 기악부 출신들로 시작하여 부산의 열정적인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D.U. 챔버 오케스트라의 무대.

- 기획, 대표/최진영 • 지휘, 해설/곽세연
- 바이올린/엄미정, 김지하, 김다인, 김주연, 김우리, 이유정
- 비올라/이정우, 권예진 • 피아노/석주안
- 첼로/백승현 • 콘트라베이스/이재원

27일(토) 오후 7:00 Play_House ensemble

집에서 듣는 음악처럼,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가득한 음악적 공간을 관객들에게 선물하고자 부산의 음악가들이 마음으로 모아 결성한 Play_House ensemble의 무대.

- 바이올린/김수현, 박인성 • 비올라/김지일
- 첼로/김한솔 • 피아노/송준섭

울속도 예술공감

일 시 | 5월 9일(화), 23일(화), 30일(화)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9일(제26회) 금빛 향연!
 브라스의 모든 것
 부산부브라스콰이어의
 경쾌한 브라스 선율로 우
 리에게 친숙한 영화음악
 과 뮤지컬 넘버, 재즈음악
 을 들려준다.
 • 리더/최수용

23일(제27회) 간판때 부산과 함께하는 'Opera Bravura'
 유럽에서 음악공부를 마치고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의 모임 '간판때 부산(Cantante Busan)'의 무대.

30일(제28회) 호세, 카르멘의 향기에 취하다.
 경성반주소사이어티가 준비한 '카르멘'의 화려한 선율로 빛어내는 이야기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음악에 영상과 해설을 얹혀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제17회 정기연주회 동행

일 시 | 5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010-9325-0839



동일대학교 피아노 전공
 생들로 구성된 동의피아노
 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지난 2005년 창단 후 매
 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관
 객과 만나온 동의피아노
 소사이어티는 이번 무대
 에서 시대별로 다양한 피
 아노곡들을 독주 및 반주,

Four Hands, Eight Hands 등 다양한 기법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쇼팽/폴로네이즈 올림바단조 작품 44
 바실 카잔지예프/토카타
 보르딘/오페라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 등
 • 연주/김정배, 신진희, 최진현, 김민성, 김아영,
 윤혜빈, 김지원, 박희정, 서소라, 서주옥,
 강하나, 강수민, 변소연, 최현진

울속도문화회관 굿모닝 콘서트

일 시 | 5월 12일(금), 26일(금)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블랙업커피 포함, 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
 기로 두 배의 기쁨을 누
 리는 울속도 음악산책 '굿
 모닝 콘서트'.

12일(제17회) 삶, 향유(享有)
 부산의 중진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삶의 희노애락
 을 노래하고 음악으로 대
 중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매그너스 드림이 아름다운 하모니에 친절한 해설을 곁들여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26일(제18회) 현대의 탱고

작곡가 겸 반도네오니스트 김중완, 피아니스트 이안나, 바이올리니스트 강소연으로 구성된 친친탱고가 탱고 황금기 시대인 1940~50년대부터 오늘날의 탱고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5월 음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5일 공연 없음)
스페이스 음
 문 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 음의 살롱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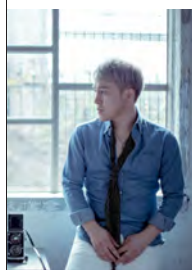
스페이스 음은 공연, 전시, 강좌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예술문화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을 발굴, 육성하며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5월 26일에는 음음악회 500회를 맞아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12일(제498회) 글 쓰는 성악가 지나 오가 풀어내는 인문학 콘서트
 신데렐라, 줄리엣, 로렐라이 등 우리에게 익숙한 여인들이 오페라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소개하는 신작 '여인들의 오페라' 출간에 맞춰 저자인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오주영)를 초청해 마련하는

조소프라노 지나 오(오주영)를 초청해 마련하는

인문학 콘서트
 • 피아노/노경원



19일(제499회) 디케이소울 라이브 콘서트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 실력을 겸비한 가수이자 절제된 보컬과 솔직한 감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디케이소울(DKSOU)의 무대. 실력과 세션들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트렌디한 힙합, R&B, 어쿠스틱 팝과 1970~80년대 유행하던 올드 팝 등 다양한 곡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라이브 무대를 연출한다.



26일(제500회) 스페이스 음 500회 기념음악회
 음음악회 제500회를 맞아 그동안 무대를 빛냈던 연주자들과 함께 축하무대로 마련되는 스페이스 음 500회 기념음악회.

양상블 영 제3회 정기연주회 세번째 이야기, 협주곡

일 시 | 5월 13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양상블 영 010-8613-4490



부산, 경남권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피아노 연주단체 영(熒)의 세 번째 정기 연주회.

'협주곡'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와 슈만, 베토벤, 쇼팽의 협주곡을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닌 피아노

반주를 통해 연주된다.

이번 무대에 서는 피아니스트 이수연은 창원대학교 음악과를 실기 수석 및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피아노 연주단체 '더 모멘트(the moment)'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성민과 장정인, 하연은 경성대학교에, 김민진은 창원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한국리스트협회 부산, 경남지부 제13회 정기연주회 쇼팽과 리스트의 '낭만'에 대하여

일 시 | 5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천재적 피아니스트이자 낭만시대의 대표적 작곡가인 리스트의 음악을 연구하는 한국리스트협회 부산 경남지부 정기연주회, 한국리스트협회 부산, 경남지부 회장인 피아니스트 김정미의 해설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쇼팽과 리스트의 주요 작품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의 마주르카, 녹턴, 에튀드, 발라드 그리고 볼레로가 연주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리스트의 '순례의 해' 중 오베르만의 골짜기, 진노의 날, 돈주앙의 회상 등이 연주된다.

- 연주/김해리, 김성주, 황성훈, 이지선, 김현정, 서보람, 정소정, 박소정

제7회 을숙도 Special Artist 하지림 재즈밴드 가요와 팝으로 듣는 재즈음악

일 시 | 5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부산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무대 '을숙도 Special Artist'. 이번 무대에서는 세련된 한국적인 재즈를 추구하고 있는 '하지림 재즈밴드'가 관객과 만난다.

꾸준한 앨범 작업과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지림 재즈밴드는 리더이자 피아니스트 하지림, 보컬 김소현, 기타리스트 김경모, 베이시스트 박주민, 드러머 피오트르 파블락으로 구성된 밴드로, 재즈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의 크로스오버적인 음악을 지향하고 가요, 국악, 클래식 등을 재즈로 재해석,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2030 EXPO BUSAN Asis & Saha 아티스트 콜라보II

일 시 | 5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예매 시 20% 할인)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아시아의 유명연주자와 부산 사하구 예술인이 함께하는 'Asia & Saha 아티스트 콜라보' 두 번째 무대. 지난 3월 일본에 이어 중국의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파 연주자 예웨이양, 양금연주자 쉐빙, 얼후연주자 우안, 고쟁연주자 우팡 등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한국 연주자들의 콜라보 무대가 펼쳐진다.

- 연출/이수인 • 객원악장/김희정
- 출연/바리톤 김창돈 • 해금 조위현
- 피리 박태영 • 대금 김동현
- 건반 박수현 • 소프라노 박지은
- 가야금·양금 김소정 • 플루트 김나래
- 첼로 윤성민 • 드럼 김민동

제492회 가람초청음악회 이소진, 김진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5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가람아트홀 621-6669, 010-3855-8604



피아니스트 이소진, 김진의 듀오 무대로 마련되는 제492회 가람초청음악회.

이소진은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석·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수로 있다.

김진희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대표, 부산 현대음악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드보르작, 비제 등 다양한 피아노곡을 들려준다.

이태리음악연구회 제56회 정기연주회 Famous Opera Arias & Rigoletto Highlights

일 시 | 5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이태리음악연구회 010-8701-8862



지난 1985년 창단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 온 이태리음악연구회의 56번째 정기연주회.

유명 오페라 아리아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베르디 중기 3대 걸작이라 불리는 오페라 '리골레토'의 하이라이트 무대로 꾸며진다.

- 소프라노/이윤정, 윤지영, 이지영, 이은미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 테너/정거하, 김성배, 양승엽, 김경민
- 바리톤/윤오건, 고영호, 박찬, 윤풍원
- 베이스/김태형
- 피아노/최승희, 윤민하, 전은령, 윤민하

제1회 골든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골든심포니오케스트라 010-5823-8565



음악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즐기는 부산의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골든 심포니 오케스트라 첫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해 9월 결성된 후 그 해 12월 창단연주회를 통해 첫발을 내딛은 골든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번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통해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지휘자 권나은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심수정, 첼리스트 송예슬, 피아니스트 함주연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베토벤의 작품을 통해 음악으로 하나되는 즐거움과 예술이 주는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 단장/최진웅 • 지휘/권나은

제18회 부산음악포럼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음악포럼 010-3885-6600,
 010-3570-3717



전문음악인과 생활성악인들로 구성된 부산음악포럼의 18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음악포럼은 지난 2005년 7월 창립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계절음악회 등 85회의 연주회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친근한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독경과 중창, 그리고 악기 연주로 들려준다.

- 소프라노/정소연, 진주희, 김채원, 이해영, 김정아, 김경희, 강민채, 신영숙, 김성미
- 테너/송은섭, 정경일, 정원철, 정량부, 양수배
- 바리톤/한성권, 배용, 황우상, 최철영, 강문중
- 클라리넷/윤수천 • 피아노/김보혜

슈테른앙상블 Classic in Jazz

일 시 | 5월 21일 일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슈테른앙상블 010-2337-4291



지난 2022년 부산에서 활동 중인 4명의 피아니스트들로 창단한 슈테른 앙상블의 무대. 독일어로 '별'이란 뜻을 지닌 슈테른 앙상블은 반짝이는 음색을 지닌 피아니스트들이 다채로운 해석과 신선한 음악

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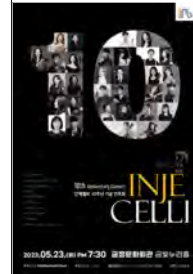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재즈곡을 피아노 듀오 및 바이올린 솔로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 M. 코닉/피아노 듀엣을 위한 라틴 모음곡 제1번, 제2번
- 피아졸라/네손을 위한 리베라탱고
- W. 볼컴/우아한 유행
- 시벨리우스/마주르카 작품 81 제1번 등
- 피아노/서혜정, 최성애, 서선정, 김지원, 김하림, 박지혜, 김민진, 최민경
- 바이올린/이효빈, 조은서

인제첼리 10주년 기념 연주회

일 시 | 5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인제첼리 010-7197-5646



인제대학교 양옥진 교수와 첼로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인제첼리가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무대.

미국 뉴욕콘서트 리뷰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와 멜로디가 나의 귀와 가슴을 어

루만졌다'라고 호평받은 첼리스트 양옥진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역임했으며, 현재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Wonder Cello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인제첼리 출신으로 현재 부산, 경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첼리스트 31명과 첼리스트 양옥진이 클래식에서부터 탱고, 영화음악,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들려준다.

제44회 짜장콘서트 삼방울자매:이것이 오부리다

일 시 | 5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청소년 및 5명 이상 단체 50% 할인)
 문 의 | 음악풍경 기획실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김창욱)이 지난 2019년부터 매달 가져온 짜장콘서트 44번째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원아름, 첼리스트 문혜정, 피아니스트 정은희로 구성된 삼방울자매는 이번 무대에서 기존 음악의 단순한 편곡을 넘어서 작곡자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롭게 편곡한 가요, 클래식, 팝, 탱고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진행/이진아(음악풍경 기획실장)

MEZCLA '정열을 노래하다' Vamos, Tango

일 시 | 5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정통 클래식 연주자들과 재즈 연주자들로 결성된 5인조 크로스오버팀 메츠클라의 무대.

피아노와 색소폰, 기타와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보컬이 만나 정열적인 탱고음악을 그들만의 색깔로 연주해온 메츠클라는

이번 무대에서 탱고음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가르델(C. Gardel)과 탱고음악의 거장 피아졸라(Piazzola)의 곡을 통해 탱고음악뿐 아니라 리믹스를 통해 새로운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 바리톤/김경환 • 클래식기타/장지용
- 피아노/윤혜빈 • 색소폰/이기봉
- 콘트라베이스/한도경

2023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5월 에브리싱글데이의 드라마음악

일 시 | 5월 31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영화음악, 드라마음악 작곡가이자 부산영화음악협회 대표 손한묵과 함께하는 2023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5월 무대.

손한묵은 2019년 전주국제영화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화 '파테르'와 2020년 영화 '런보이런'

의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드라마 '의사요한', '에이틴 어게인', '간 떨어지는 동거', '오늘의 웹툰', '조선 정선과 의사 유세풍' 등 유명 작품에 참여하여 영상음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에브리싱글데이'의 리더로, 드라마 '파스타', '너의 목소리가 들려', '힘센여자도 봉순' 등 수많은 히트 드라마 OST를 작업하여 대중의 호평을 받은 부산 출신의 음악감독 문성남의 대표작을 들려준다.

연극

연극 **운빨로맨스**

일 시 | 3월 9일(목)-5월 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12세 이상 관람)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TV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연극 '운빨로맨스' 부산에서는 첫선을 보이는 이번 무대는 점과 운명을 맹신하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 믿는 남자 '제택후'의 운명적인 로맨스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운명을 맹신하는 여자 '점보니'는 호랑이띠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점괘를 듣게 된다. '점보니'는 어느 날 건물주 '제택후'가 호랑이띠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점보니의 호랑이띠 남자와의 하룻밤 보내기 프로젝트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2023 제41회 부산연극제

일 시 | 4월 7일(금)-5월 19일(금)
영화의전당, 부산예술회관, 남구평화공원 외 부산지역 소극장
 입장료 | 통합관람권 10만원, 섹션B 2만원, 섹션 U.S.A.N 무료
 문 의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매년 봄에 펼쳐지는 부산 연극 최대의 축제 '부산연극제'. 올해부터 기존의 연극제 예선무대가 아닌 시민들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마련되는 이번 연극제에서는 부산 대표 극단의 공연들이 펼쳐지는

Base, 부산의 신진 극단이 참여하는 Unique를 비롯해 전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독백 경연대회 Social, 부산시민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All, 그리고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지는 Noise 등 총 다섯 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6월 16일~7월 7일)는 부산연극제작소 동년도의 창작극 '1945'가 부산 대표로 무대에 오른다.

극단 스테픈울프 '몽심' [Base]
 5월 2일(화)-3일(수) 오후 7:30 하늘바람 소극장
 불행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던 이란성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 작품.
 ※15세 이상 관람
 • 작·연출/정아린

극단 판플 '게릴라 씨어터' [Base]
 5월 4일(목)-5일(금)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5:00 나다소극장
 누군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바보같은 게릴라들을 통해 오늘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작은 위로를 던지는 작품 ※전체 관람
 • 작/오세혁 • 연출/양재영



극단 아티스트릿 '알고리즘' [Base]
 5월 6일(토)-7일(일) 오후 5:00 용천지탈 소극장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 ※13세 이상 관람
 • 작·연출/박성준

극단 물레방아 '비평가' [Unique]
 5월 6일(토)-7일(일) 오후 7:30 소극장 6번출구
 서로를 의식하며 견제해 온 비평가 볼로디아와 극작가 스킨카르파가 '연극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격렬한 토론을 펼치며 관객들에게 연극의 참맛을 선사하는 작품 ※전체 관람
 • 원작/후안 마요르가 • 번역/김재신
 • 연출/최유경



극단 연 '시라노' [Base]
 5월 9일(화)-10일(수) 오후 7:30 하늘바람 소극장
 유난히 큰 코에 대한 콤플렉스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시라노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지는 작품.
 ※7세 이상 관람
 • 원작/에드몽 로스탕 • 연출/김학준

극단 코코 '물의 우비 입은 날' [Base]
 5월 11일(목)-12일(금) 오후 7:30 나다소극장
 편식화된 정보를 통해 권력자들에게 무의식이 잠재당하는 사회를 희화한 작품 ※전체 관람
 • 작/추연우 • 연출/안로검



극단 B급로타리 '시절' [Base]
 5월 13일(토)-14일(일) 오후 5:00 용천지탈 소극장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는 학폭 문제를 다룬 작품. ※15세 이상 관람
 • 작·연출/권상우

극단 단추 '도담도담' [Unique]
 5월 13일(토)-14일(일) 오후 7:30 소극장 6번출구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다 함께 마지막 추억을 쌓기 위해 연극을 준비하던 4명의 친구들이 그 과정에 서로 싸우고 화해하며 나와 나를 배우게 되는 청춘의 푸르른 이야기를 담은 작품 ※전체 관람

극단 아센 '메카, 그 해 따뜻한 겨울' [Base]
 5월 16일(화)-17일(수) 오후 7:30 하늘바람소극장
 인생과 자아의 본질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삶에 대한 아름다운 서사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7세 이상 관람
 • 원작/아들 후가드 • 재구성, 연출/호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일 시 | 3월 25일(토)-6월 1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9만원, R석 16만원
 S석 13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문 의 | 클럽서비스(주) 1577-3363



한국 초연 22년 만에 성사된 역사적인 한국어 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전 세계 1억4천5백만 명을 매혹시킨 걸작으로 토니상, 올리비에상을 포함하여 메이저 어워즈 70여 개를 석권한 '오페라의 유령'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34년 넘게 동시에 공연된 유일한 작품으로, 가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불세출의 명곡이 선사하는 가면 속의 감춰진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관객들을 매혹시킨다.
 '오페라의 유령' 역의 조승우, 김주택, 전동석을 비롯해 다시는 만나기 힘든 최정상 캐스팅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연극 완벽한 커튼콜

일 시 | 4월 13일(목)~7월 23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12세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분장실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한번에 2가지 공연을 볼 수 있는 신선한 시도, 파격적인 웃음으로 화제가 된 연극 '완벽한 커튼콜'.

연극 '설록홈즈'가 열리는 공연장의 분장실. 각종 언론사 인터뷰 요청부터 공연 전 점검사항까지 정신없이 돌아가고, 드디어 막은 무대는 시작부터 실수연발 위태위태하게 흘러간다. 설상가상으로 무대 뒤편 공연은 뒷전, 배우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분장실의 민낯을 유쾌하게 그린 '완벽한 커튼콜'은 기발한 연출과 더불어 초단위로 뱅뱅 타지는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가 관객들에게 찐 웃음을 선사한다.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일 시 | 5월 5일 금요일 오후 5:00,
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7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천재 음악가 라흐마니노프의 멈춰버린 3년,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3년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 공연으로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나는 '라흐마니노프'는 천재적인 작곡가로 알려진 라흐마니노프가 첫 교향곡을 완성한 후 혹평과 함께 슬럼프에 빠져 절망하고 있던 시기에 정신 의학자 니콜라이 달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무대 위 현악 4중주와 피아노,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어린이뮤지컬

허풍선이 과학쇼 장영실V에디슨

일 시 | 5월 6일 토요일 오후 2: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5세 이상 관람, 예매 시 20% 할인)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 체험 배리어티 공연 '허풍선이 과학쇼 장영실V에디슨'.

EBS에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 '허풍선이 과학쇼'를 원작으로 한 이번 무대는 당대 최고 과학자였던 '장영실'과 '에디슨'이 제작한 발명품의 과학적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예술과 교육을 결합시킨 무대이다.

특히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관객 체험, 특수효과 등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무대 구성으로 기존 캐릭터 중심의 어린이극과는 차별화된 색다른 무대를 경험할 수 있다.

• 연출/이상근

뮤지컬 벨벳토끼

일 시 | 5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2021년 제29회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을 수상한 타루의 어린이 소리극 '벨벳토끼'.

탄탄한 스토리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동명의 영미권 고전 동화를 원작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연희가 함께하는 전통

예술로 재해석한 '벨벳토끼'는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애착인형과의 경험을 통해 사랑, 존재, 관계의 의미에 대해 서로 공감을 나눈다.

지난 2001년 창단 후 전통예술을 뿌리로 국악 창작극의 영역을 넓혀온 타루는 지난해 KBS국악대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미술사 엘의 드라마틱 매직 콘서트 마술

일 시 | 5월 13일 토요일 오후 3: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48개월 이상 관람)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특별히 마련한 미술사 엘의 드라마틱 매직 콘서트 '마술'.

가끔은 온 세상이 만화처럼 느껴질 때, 어느 날 초록의 나뭇잎이 붉게 물들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

이에 사랑에 빠졌을 때, 소중한 누군가가 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마술 같은 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매직콘서트 '마술'은 삶 속의 마술 같은 순간들을 진짜 마술과 드라마로 표현한 본격 가족친화형 매직 콘서트로, 관객들에게 환상적인 마술의 세계로 안내한다.

연극 오랜기억

일 시 | 5월 16일-18일 화-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석 3만원, 2층석 2만원(중학생 이상 관람)
문의 | 빅피쳐스테이지 010-4820-1736



실제 범죄자를 모티브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을 그린 범죄심리 스릴러극 '오랜기억'.

2021년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 최우수연출가 작품으로 선정, 그 해 초연 무대를 가진 '오랜기억'은

지난해 대본 수정작업을 거쳐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올해 우수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특히 이번 작품은 가해자에 대한 증오와 범죄적 호기심보다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고통과 분노, 슬픔을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함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 작, 연출/김정환 • 각색/이태경
• 출연/박호천, 최현정, 박규한, 박센, 이태경, 박소민, 이충환, 이설

캐릭터뮤지컬 책먹는 여우

일 시 |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3만원(24개월 이상 관람)
문의 | 극단 가람 031-633-4864



어린이 필독서로 선정되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독일 작가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책먹는 여우'. '책 먹는 여우'는 독일 트로이스도르프상 수상, 전국 도서관장 추천도서, 교문교 어린이도서 분야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명작으로, 책을 너무 좋아하는 여우가 벌이는 한바탕 소동을 통해 독서의 의미와 방법을 알려준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탄탄한 스토리에 신나는 음악과 코믹한 캐릭터들을 가미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특히 컴퓨터와 TV에 폭빠진 어린이들에게 책과 공연의 재미를 일깨워 줄 수 있다.

패밀리서커스 '이상한나라의앨리스' 오리지널 내한공연

일 시 | 5월 20일-21일 토요일 오후 2:00, 6: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A석 7만7천원(5세 이상 관람)
문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아찔한 춤과 의상, 서커스, 모던발레, 아크로바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뛰어든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도착해 겪는 신기한 모험이야기를 그린 루이스 캐럴의 동화를 원작으로, 수수께끼 같은 무대장치와 눈을 땔 수 없는 화려한 퍼포먼스, 모던발레가 합쳐진 뮤지컬과 서커스, 아크로바틱 아트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역동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유럽 최고의 배우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중체조 선수, 서커스 예술의 국제적인 수상자들이 펼치는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무대가 관객들을 동화의 세계로 안내한다.

5월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온가족이 함께하는 복화술 콘서트

일 시 | 5월 20일 토요일 오후 2: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내 최고 복화술사 안재우를 초청하여 마련하는 마법 같은 복화술 콘서트. Voice Artist 안재우는 세계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 복화술사로, 지난 2009년 국내 최초 복화술공연 '메롱이 아빠의 육아일기'를 시작으로 2010년 세계 최고의 복화술사들의 행사인 '벤트 해브 컨벤션'에 한국인 최초로 공식 초청을 받아 무대에 선 바 있다. SBS스타킹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기기도 했던 안재우는 이번 무대에서 배우와 인형, 그리고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2023 신나는 캐릭터뮤지컬 과학특공대

일 시 | 5월 27일-2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4만원(예매시 2만2천원)
문의 | 아이에이치컬처 070-4045-2302



과학특공대의 리더 '특'을 중심으로 쌍둥이 형제 '과'와 '학',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공', 약간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대' 등 다섯 명의 친구들로 구성된 과학특공대의 활약을 그린 캐릭터뮤지컬 '과학특공대'. 과학의 신비를 풀기 위해 우주여행을 떠났던 과학특공대는 천재 과학자 아람 박사의 부탁을 받고 사라진 신발을 찾기 위해 반짝 탐정과 수사에 나서는데... 과연 과학특공대는 아이들의 신발을 가져간 범인을 밝히고 도둑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리고 과학으로 가득한 이 호텔에 숨겨진 또 하나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번 작품은 풍성한 볼거리와 재미를 통해 신기한 과학의 세계로 어린이들을 이끈다.

콘서트

박상민 밴드 콘서트 니가 그리운날엔

일 시 | 5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 검은 선글라스와 턱수염이 매력 포인트인 가수 박상민의 무대. 1993년 데뷔하여 지난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박상민은 허스키한 목소리에 락과 소울이 섞인 듯한 창법과 풍부한 성량이 어우러져 많은 히트곡을 냈으며, 특히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한 액수만 40억 원에 이르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가요계의 대부이다. 이번 무대에서 박상민은 '해바라기', '청바지의 아가씨', '무기여 잘있거라'와 더불어 최근 개봉하여 다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수록곡 '너에게로 가는 길' 등 그의 최고 히트곡을 들려준다.

행사

5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금요일·토요일 오후 2:00, 7: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오페라 전문 음악 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5월 영상감상회. 매주 화요일에는 브람스의 교향곡과 협주곡을 소개하는 브람스 시리즈, 금요일에는 베르디 탄생 210주년을 맞아 베르디 오페라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베르디 탄생 210주년 특집)/나부코(5일), 일 트로바토레(12일), 라 트라비아타(19일), 돈 카를로(26일) 콘서트/라흐마니노프 다큐(2일), 브람스 교향곡 1번, 2번(9일), 브람스 교향곡 3번, 4번·하이든 변주곡(16일),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23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독일 레퀴엠(30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감상이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가 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 해설가, 시인,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음악의 해외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클래식음악의 이해와 감상법& 베토벤 '전원교향곡', '코랄판타지', '아델라이데'
 알기쉬운 서양음악사특강-바로크음악의 이해& 비발디 '화성의 영감', 헨델 '수상음악'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기행-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모음곡 체코기행-체코 국민주의 음악의 이해_드보르작 '첼로협주곡', 스메타나 '몰다우강' 영화음악의 거장들과 클래식 영화음악-엔니오 모리코네&한스 짐머의 영화음악 콘서트 실황 뮤지컬과 오페라의 차이점-뮤지컬 '미스 사이공' &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제184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아버지'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5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010-63670-0149

- 출연/조현숙 시인 외 회원, 초대시인
- 초청 음악가/황창근(팬플루트 연주자)

2023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정두환의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 음악, 그리운 그 대상의 미학

일 시 | 5월 31일 수요일 오후 6:30
 상지건축 대학의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상지건축 대외협력본부 240-1526, 1529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만나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

천재라는 분야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음악', 그 음악의 본질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가 필요하며 각각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본성이 만날 때 시대를 읽어내는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길이다.

이번 강좌는 음악이라는 소재로 세상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 받을 수 있는 자리이다.

5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9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1일(월) 오후 7:00 인간과 사람

- 강사/허민도(부경대 수산생명과학과 교수)

8일(월) 오후 7:00 이성과 감성의 철학사.단자론

- 강사/김상곤(컬럼니스트)

15일(월) 오후 7:00 한국미술의 원류.민화

- 강사/이영실(울칠민화작가, 민화연구자)

19일(목) 오전 11:00 낭독과 낭송, 다(茶)와 시조 창과 詩수다 '나는 너다(황지우, 문지사, 2015)'

22일(월) 오후 7:00 확장 영화의 모색과 가능성.인터랙티브 시네마

- 강사/김대홍(영화감독, 동의대 영화학과 겸임교수)

29일(월) 오후 7:00 이견회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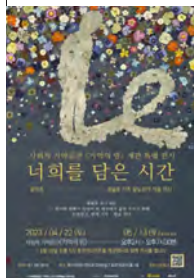
- 강사/김덕정(부산시립미술관 도슨트)



전시

효로인디아트홀 기억의 방 개관 특별전 너희를 담은 시간

일 시 | 4월 22일(토)-5월 13일(토)
 효로인디아트홀 기억의 방
 문 의 | 효로인디아트홀 245-5919



효로인디아트홀 1층에 자리한 사회적 기억공간 '기억의 방'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전.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꽃누르미 창작 동아리 '꽃마중'이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떠나보낸 고통을 꽃누르미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전시한다.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

일 시 | 5월 27일(토)-9월 3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관람료 | 1만5천원(5월 26일까지 예매시 50% 할인)
 문 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4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교육 전시 다섯 번째 계절. 낮선 행성, U+1F728

일 시 | 5월 2일(화)-6월 11일(일)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관람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7



금정문화회관이 2023년 첫 기획전시로 마련한 '다섯 번째 계절. 낮선 행성, U+1F728'.

시각예술 감상과 공간적 체험이 융합된 교육전시로, 팬데믹이 지난 후 다가올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담은

STUDIO 1750(김영현, 손진희)의 설치작품을 전시한다.

- 운영시간/오전 10:00~오후 6:00 (매주 월요일 휴관)



선생님, 우리 영화로 세계시민 만나요!

변지윤 외 지음 / 살림터 / 1만9천원

좋은 영화의 힘은 크다. 재미와 감동으로 보는 동안 가슴이 뛰고 생각의 변화를 느끼며,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때가 있다. 이 책은 변지윤 경기 신성중학교 교사, 권부연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등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들이 영화로 세계시민교육을 이야기한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했다. 사람, 번영, 지구, 평화, 협력의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17개 목표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드는 세상'인 영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사람, 번영, 지구, 평화, 협력'을 구조화해서 세계시민교육의 정수를 보여 준다. 저자들은 영화 <가버나움>의 나딘 라바키 감독의 말을 소개한다. "저는 영화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화에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 주고,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동안 고통 받고 있었던 아이들을, 이제는 못 본 체 등 돌리지 않기를 바라며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가설정원

김예강 시집 / 시인의일요일 / 1만2천원

부산에 거주하면서 2005년 '시와사상'으로 등단한 김예강 시인이 '고양이의 잠', '오늘의 마음'에 이어 세 번째 시집을 냈다. 김 시인의 시집 세 권은 공간에 대한 관찰로 가득하다. 두 번째 시집 '오늘의 마음'에서는 좁고 구불거리는 골목을 따라 걸으며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나머지 풍경'을 낯선 언어로 그려 보인 바 있다. 이번 시집에서는 '장소의 부재'를 상징하는 '가설공원'에서 실감하는, 위태로운 삶의 난해와 난감을 온몸으로 그려냈다. 표제시 '가설정원'은 시집의 맨 마지막 작품으로 수록됐다. 한 구절을 읽어보자. "도시의 싱싱한 꽃을 팔았다/ 가설했다 도시는 향기를 가설하고/ 가을을 가설하고/ 가설한 행복을 심었다// 도시에 사이렌이 울고/ 가설정원은 개장했다/ 정원 관람객은/ 시들지 않는 꽃들을/ 관람했다// " 가설한 행복이라는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가설정원'을 단순히 풀어내면, '임시로 설치한 꽃밭'이다. 김예강 시인은 '가설'이 갖는 임시적 속성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예측하는 진술이자 변수로서 우리 삶의 진실을 추정하려고 의도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집이 가설된 것이라면 위태롭다. 그 위태로움을 김예강 식으로 극복한다.

꽃을 그리는 마음

이옥근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만원

아름다운 꽃을 보면 사진으로 찍고 싶다. 스마트폰만 꺼내면 된다. 찍고 나면 공유하고 싶다. 곧바로 SNS에 올리지만 하면 된다. 계절 변화는 지인들이 SNS에 올린 꽃 사진으로 느낄 정도다. 평범한 사람이 이룬데 미적 감수성이 뛰어난 화가들은 더 하지 않을까.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은 그 자체로 더없이 훌륭한 그림 소재다. 계절마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을 보며 영감을 얻은 화가들은 지나칠 수 없었다. 화가의 개성으로 그린 꽃은 시들지 않고 명화로 남았다. 미술학자 이옥근의 '꽃을 그리는 마음'은 다양한 꽃을 그린 화가들과 꽃 그림에 관한 25가지 에피소드를 담았다. 그림 속에서 꽃이나 나무처럼 자연물에 담긴 특별한 의미와 상징을 찾는 데 관심이 많은 저자는 그 감동의 순간과 독자의 일상을 연결하고자 이 책을 썼다. 고흐의 해바라기와 아몬드꽃, 모네의 양귀비, 고갱의 티아레 꽃, 마리 로랑생의 꽃 정물화, 마네의 라일락 등 유명 화가의 명화 속에는 꽃이 있었다. 책에서 꽃이 그려진 명화를 감상하다 보니 끝없이 이어지는 꽃길을 걷는 기분이다. 고대 이집트 벽화의 수련, 중세 종교화 속 장미, 17세기 네덜란드 툴립 등 특별한 역사와 상징도 설명한다.

부산시, 부산시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이 부산시청·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초·중·고 학생의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인 '어릴적예(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릴적예(藝)'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볼 만한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을 출판받아 올해 11월, 벡스코에서 열리는 마켓을 통해 작품을 선보이면 학교가 직접 공연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마켓에서 선보일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예술경험지원협의회(가칭)를 따로 구성해 심사하고 우수 작품과 개별 작품으로 나누어 공개한다. 수업시간 이내에 1시간 가량 관람하기 알맞은 공연이 대상이며, 공연은 부산시가 대관 일정을 확보한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위탁 수행하며, 부산시는 자율 선택 방식에 따라 같은 공연에 여러 학교가 몰리지 않도록 별도 플랫폼을 구축, 공연과 학교를 매칭시킨다. 한편, 지난 4월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정필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17일에는 지역 대중음악 생태계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4월 6일에는 부산시민의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부산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협연자 모집 안내

● 연주회 일시 및 장소 2023년 10월 6일(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응시 자격 및 모집 부문

• 응시 자격

- 원서접수시 초·중·고·대학교(인제대 포함) 등 부산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부산지역에 거주하며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동일 연령 청소년
- ※ 단, 2020년(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이후 협연한 자는 응시 불가

• 모집 부문 : 피아노, 현·관·마림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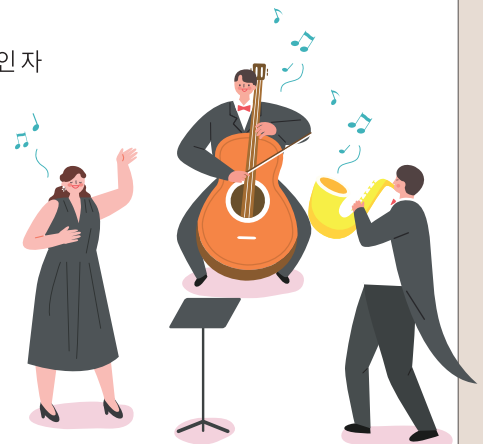
- ※ 각 악기별로 대상자가 없을 수도, 많을 수도 있음
- ※ 심사 결과에 준하여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접수기간 : 2023년 5월 10일(수)~24일(수) 10:00~17:00

● 접수처 : 이메일 cyhyjy@bscc.or.kr ※ 접수 완료여부 반드시 유선전화 확인 요망

● 전형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예술단운영팀 교향악단 담당(607-3122)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층 3만원 | 2층 2만원

주최  부산문화회관

예매 및 문의
www.bscc.or.kr
051-607-6000

티켓 오픈일
정기회원 선오픈 2023. 3. 7.(화) 14시
일반회원 오픈 2023. 3. 8.(수) 14시



호통판사
천종호
4.22.(토)
15:00



미국 방송인
타일러 라쉬
5.13.(토)
15:00



리치언니
박세리
6.9.(금)
15:00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10.14.(토)
15:00



미술사학자
유흥준
7.1.(토)
15:00



104세 철학자
김형석
11.11.(토)
15:00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3 시즌 프로그램

예매 오픈

2023. 5. 4(목) 오후 2:00

※ 정기회원 선오픈 2023. 5. 3(수) 오후 2:00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 마감은 공연 1일 전 14:00 • 취소 마감은 공연 1일 전 17:00
공연 1일 전 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 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3. 7-12월

Jul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유럽 최고 수준의 스페니시 챔버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문화 | 대극장 2023. 4. 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임지영&문태국 슈퍼 듀오와 함께하는
브람스 음악세계의 진수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4. 22.(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 지휘 | 마르코 레토나
- 연주 |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 | 임지영(바이올린), 문태국(첼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3. 4. 27.(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출연 | 기타리스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 장승호
- 콘서트 가이드 | 국지연



별과 꿈, 동심의 만남! 우리가 꿈꿔온 설렘이 시작된다
어린이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문화 | 사랑채 2023. 6. 9.(금)-7. 23.(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 ※월-화요일 공연없음
-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오오씨어터
- 출연 | 박규한, 김성열, 이충환, 정지수 외 다수



2023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3. 6. 28.(수) 7:30pm
R 20,000원 S 1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연주 |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 지휘 | 김현국 • 피아노 | 황성훈
- 첼로 | 양욱진 • 오보에 | 권성은



소프라노와 12명의 첼리스트가 빚어내는 천상의 하모니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문화 | 대극장 2023. 7. 4.(화) 7:30pm

- ※만 7세 이상 관람
- VIP 160,000원 R 120,000원 S 80,000원
- 출연 | 소프라노 조수미,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오페라 <카르멘>

문화 | 중극장 2023. 7. 13.(목) 7:30pm

※만 7세 이상 관람
R 50,000원 S 30,000원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제주시아트센터-제주4·3평화재단 공동기획 및 제작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문화 | 대극장 2023. 8. 18.(금) 7:30pm
무료 ※티켓오픈 추후공지, 초등학생 이상 관람

- 총감독, 연출 | 강해명
- 원작 | 현기영
- 대본 | 김수열
- 작곡 | 최정훈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극단가람, 밀물현대무용단, 순이삼촌오페라합창단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문화 | 사랑채 2023. 8. 18.(금)-9. 24.(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화요일 공연없음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영
- 출연 | 최진희, 원우연, 이승, 이한강, 이명진 외



2023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KBS 성우 쟁구엄마 송연희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문화 | 중극장 2023. 8. 20.(일) 11:00am, 3:00pm
R 40,000원 S 20,000원 ※만 5세 이상 관람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문화 | 대극장 2023. 8. 26.(토)-27.(일) 3:00pm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8세 이상 관람

- 작곡 | G.푸치니 • 연출 | 정선영
- 지휘 | 김현수
- 합창-연주 | 2023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문화 | 중극장 2023. 8. 31.(목) 7:30pm
※만 7세 이상 관람
R 50,000원 S 30,000원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선물처럼 찾아온 특별한 하루!
뮤지컬 <이상한 엄마>

문화 | 중극장 2023. 9. 9.(토)-10.(일)
11:00am, 2:00pm, 4:00pm
R 60,000원 S 40,000원
※12개월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원작 | 백희나



©할리퀸크리에이션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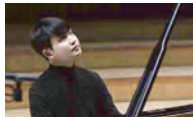
세기의 오페라 대결이 시작된다!
뮤지컬 <파리넬라>

문화 | 대극장 2023. 9. 23.(토)-24.(일)
※ 중학생 이상 관람
※ 공연회차, 출연진 및 티켓오픈 추후공지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애권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3. 10. 6.(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예측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온 맘이 들끓어
뮤지컬 <마리 퀴리>

문화 | 대극장 2023. 10. 14.(토)-15.(일)
※중학생 이상 관람
VIP 99,000원 R 88,000원 S 66,000원
※ 공연회차, 출연진 및 티켓오픈 추후공지
• 프로듀서 | 강병원 • 극작 | 천세은
• 작곡 | 최종운 • 연출 | 김태형
• 안무 | 신선호
• 음악감독 | 신은경
• 제작 | 라이브(주)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동백꽃 질 무렵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2023. 10. 19.(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익숙하고 편안한 음악을 통한 추억 여행
<모던 애프터눈>

문화 | 챔버홀 2023. 10. 21.(토) 5:00pm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 출연 | 김소영, 박강현, 이호찬, 오신영



부산 지역 예술단체의 저력을 볼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문화 | 중극장 2023. 11. 2.(목), 5.(일), 9.(목)



NHK 다큐멘터리 '대항하'의 주인공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11. 9.(목) 7:30pm
R 40,000원 S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2023 대학 교향악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18.(토)-26.(일)
평일 7:30pm, 주말 3:00pm
전석 10,000원 ※ 티켓오픈 추후공지
• 11.18.(토) 3:00pm | 경성대학교
• 11.19.(일) 3:00pm | 동덕대학교
• 11.24.(금) 7:30pm | 인제대학교
• 11.25.(토) 3:00pm | 동아대학교
• 11.26.(일) 3:00pm | 부산대학교



공개 오디션을 통한 청년 희망 날개 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문화 | 대극장 2023. 12. 2.(토) 5:00pm
전석 30,000원
※ 초등학생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출연 | 청년 성악가(공모) 및 부산성악가협회원



평범한 오늘 시작된 특별한 시간여행
뮤지컬 <렛미플라이>

문화 | 중극장 2023. 12. 15.(금)-16.(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60,000원 S 50,000원 ※8세 이상 관람
• 작 | 조민형 • 작곡 | 민찬홍
• 연출 | 이대웅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홉의 대표작!
시나위의 감성으로 풀어낸 명작의 연극미학
<벚꽃동산>

문화 | 중극장 2023. 12. 22.(금)-23.(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30,000원 S 20,000원 ※14세 이상 관람
• 작 | 안톤 체홉 • 연출 | 이기호
• 기획 | 극연구집단 시나위
• 출연 | 박상규, 우명희, 박창화 외 11명



부산시민회관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뽀를 찾아라

시민 | 대극장 2023. 5. 20.(토) 3: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출연 | 핑크퐁, 아기사아, 대니 구, 펭귄코러스, 바샤르 오케스트라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음유시인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3. 5. 26.(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초등학교 이상 관람



예술의전당 우수 예술콘텐츠 상영프로젝트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3. 6. 28.(수), 8. 30.(수),
10. 25.(수), 11. 29.(수) 매주 수요일 7:00pm
무료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기원 페스티벌!
부산버스킹페스타

시민 | 소극장 2023. 7. 1.(토) 3:00pm
전석 20,000원
• 출연 | 2023년 버스킹 예선 통과팀(10개팀)
• 예술감독 | 김종근
• 협력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 게스트 | 디핑크



한때 우리는 모두 '야구왕'이었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시민 | 대극장 2023. 7. 5.(수)-16.(일)
수-목요일 10:30am, 금요일 7:30pm,
토요일 11:00am, 2:00pm, 일요일 11:00am
VIP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작 | 김정민 • 음악감독 | 성찬경
• 연출 | 이대웅



관객과 평단을 동시에 사로잡은 수작!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시민 | 소극장 2023. 7. 7.(금) ~ 8.(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 작가 | 레지날드 로즈(Reginald Rose) • 연출 | 류주연
• 번역 | 김용준
• 출연 | 이현경, 오재근, 민병욱, 최명경, 이재인, 방기범, 김애진, 반인환, 홍성호, 김용식, 김서아, 황비홍, 허준호
• 후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어른들을 위한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연극 <검정 고무신>

시민 | 소극장 2023. 7. 22.(토) 3:00pm
전석 20,000원 ※8세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예저도
• 작 | 김지연 • 연출 | 최재민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3 시민뜨락축제

장소 미정 2023. 8. 19.(토)-9. 2.(토)
매주 토요일 12:20pm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무료



디즈니의 마법, 그 이상을 경험하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시민 | 대극장 2023. 8. 26.(토) 3:00pm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 출연 | 디도 오케스트라, 디즈니 싱어즈(최민우, 김한희, 이종석, 홍경아 외)



2023 부산 인터네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시민 | 대극장 2023. 9. 1.(금)-2.(토)
평일 7:00pm, 주말 3:00pm
R 8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7세 이상 관람
• 출연 | 이은미&민경인트리오, 말로, 시호&시게키, 최은아, 위나&조윤성트리오, 이효정



2023년 국립발레단이 아쉽게 선보이는 신작,
부산에서 만나다!
발레 <돈키호테>

시민 | 대극장 2023. 9. 16.(토)-17.(일) 2:00pm
VIP 90,000원 R 7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음악 | 루트비히 민쿠스 • 원안무 | 마리우스 프티파
• 재안무 | 송정민 • 각색 | 정다영
• 작, 편곡 | 김인규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주)화승



©수진원

관객이 뽑은 '국립극단에서 보고 싶은 연극 1위'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시민 | 대극장 2023. 11. 3.(금)-4.(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50,000원 S 30,000원 ※14세 이상 관람
• 원작 | 기군상 • 각색, 연출 | 고선웅



동화구연을 활용한 우화와 무용의 만남!
무용 <여우와 돌고래>

시민 | 소극장 2023. 11. 18.(토) 3:00pm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안무 | 임진호, 이경구 • 드라마트루그 | 지경민
• 제작 | 고블린파트너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

문화 | 대극장 2023. 1. 18.(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제596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19.(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첼로 심준호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

문화 | 챔버홀 2023. 2.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7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죽음

문화 | 대극장 2023. 2. 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홍석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줄인 I

문화 | 챔버홀 2023. 3. 3.(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I

문화 | 대극장 2023. 3. 21.(화)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 *오픈리허설

문화 | 대극장 2023. 3. 22.(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3.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9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과 버르토크

문화 | 대극장 2023. 4.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금노상
• 바이올린 나승준(2023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I

문화 | 챔버홀 2023. 5. 4.(목)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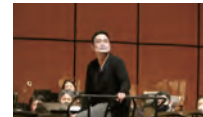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2023. 5. 19.(금) 11:00am,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대극장 2023. 6. 14.(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기획음악회
BPO Odyssey

문화 | 대극장 2023. 6.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제600회 정기연주회
말리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6. 16.(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문화 | 대극장 2023. 7.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서진 | 바이올린 김재원



제602회 정기연주회(202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네 개의 프랑스 관현악

문화 | 대극장 2023. 9. 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



제6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3. 9. 2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김덕기 |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스프



기획음악회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3. 10. 6.(금) 7:30pm
전석 5,000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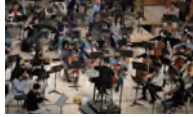
문화 | 중극장 2023. 10. 25.(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III

문화 | 중극장 2023. 10. 26.(목)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4회 정기연주회

손민수의 브람스 협주곡

문화 | 중극장 2023. 10. 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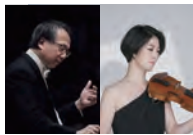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3. 11.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605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문화 | 대극장 2023. 11.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사오치아 루 | 바이올린 백주영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III

문화 | 챔버홀 2023. 12. 1.(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IV

문화 | 대극장 2023. 12. 13.(수) 7:30pm
전석 5,000원



제606회 정기연주회

영웅의 생애

문화 | 대극장 2023. 12. 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 '사랑의 노래'

문화 | 중극장 2023. 3. 23.(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창은 | 클라리넷 이효주
• 바이올린 이소정 | 타악 성형원



특별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3. 5. 4.(목) 7:30pm, 5.(금) 11:00am
R 20,000원 S 10,000원
• 지휘 이기선



제190회 정기

모차르트 레퀴엠

문화 | 대극장 2023. 6. 22.(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특별연주회

2023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3. 7. 20.(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희준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I

문화 | 중극장 2023. 9. 21.(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손동현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0. 17.(화)-19.(목) 7:00pm
무료



특별 및 교류연주회

현대합창의 밤

문화 | 대극장 2023. 10. 20.(금) 7:30pm
전석 10,000원



제191회 정기

멘델스존 엘리야

문화 | 대극장 2023. 11.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2. 2.(목) 7:30pm
전석 10,000원
• 사회 백규진



특별연주회

감각, 생명

문화 | 대극장 2023. 3. 31.(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3. 4. 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19회 정기연주회

Insight Music: 통찰의 시간

문화 | 대극장 2023. 5. 1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0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6. 20.(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문화 | 챔버홀 2023. 7. 20.(목)-21.(금) 7:30pm
전석 10,000원



제221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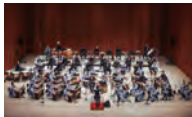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2023. 9. 13.(수)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제48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2023. 10. 12.(목) 7:30pm
전석 5,000원



제222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1. 16.(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2.(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The 50_Time to Dance

시민 | 대극장 2023. 2. 25.(토) 3:00pm
전석 20,000원



제87회 정기공연

1002 Nights_천 두번 째의 밤

시민 | 대극장 2023. 5.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윤(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 지휘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공연회

이정윤의 댄스살롱_The50/그 동안

문화 | 중극장 2023. 7. 12.(수)-22.(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제88회 정기공연

The Legacy

문화 | 대극장 2023. 10. 27.(금)-28.(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윤(예술감독)



특별공연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

문화 | 중극장 2023. 12. 8.(금)-9.(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피터팬'

문화 | 중극장 2023. 2. 25.(토) 4:00pm, 7:00pm
2. 26.(일) 1:00pm, 4:00pm
전석 10,000원
• 원작 J.M.배리 | 각색 강보람
•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제74회 정기공연

집집·하우스 소나타

문화 | 중극장 2023. 3. 30.(목)-4. 1.(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
• 작 한현주 | 연출 주혜자



특별공연

뮤지컬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2023. 5. 3.(수)-5. 28.(일)
• 원작 H.C.안데르센 | 각색 신서영
• 작곡 진소영 | 연출 김지용



특별공연

소년B가 사는 집

시민 | 대극장 2023. 6. 14.(수)-24.(토)
평일 10:00am, 2:00pm(단체관람), 토요일 5:00pm
전석 20,000원
• 극작 이보람 | 연출 최용혁



제75회 정기

스타프로젝트 2023-극작가 김문홍전

-안개주의보, 목련꽃 그늘 아래서, 사자의 편지
시민 | 소극장 2023. 9. 7.(목)-9(토), 14.(목)-16.(토),
21(목)-23(토), 시간미정
• 연출 미정



제76회 정기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2023. 12. 7.(목)-1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0회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3. 28.(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2023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5. 23.(화) 7:30pm
전석 5,000원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6. 17.(토) 5:00pm
무료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7. 22.(토) 5:00pm
무료



제71회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9. 5.(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0. 31.(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11. 11.(토) 7:30pm
전석 2,000원



제72회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12. 26.(화) 7:30pm
전석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문화 | 챔버홀 2023. 2. 21.(화) 7:30pm
초대



특별연주회

가정의 달에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문화 | 챔버홀 2023. 5. 27.(토) 5:00pm
무료



특별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3. 7. 15.(토) 5:00pm
전석 2,000원



제16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9. 9.(토) 5:0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3.(금) 7:30pm,
11. 4.(토) 5:00pm
무료



제164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6.(토) 5:00pm
전석 2,000원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우리 아이 첫 번째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_뚜띠를 찾아라>

5월 20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S석 40매)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6월 28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40매)

2023 부산버스킹페스타

7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40매)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7월 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10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7월 5일(수)-16일(일) 수·목요일 오전 10:30,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평일 제외)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3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7월 7일(금)-8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초대권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 오페라 카르멘>

7월 1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5석 30매)

연극 <검정 고무신>

7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8월 20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8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8월 26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8월 31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5석 30매)

**2023 부산 인터네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9월 1일(금)-2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9월 16일(토)-17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6일자 공연 5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동백꽃 질 무렵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0월 1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5석 30매)

음악을 통한 추억여행 <모던 에프터눈>

10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초대권 20매)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1월 3일(금)-4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11월 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가족을 위한 무용 동화 <여우와 돌고래>

11월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뮤지컬 <렛미플라이>

12월 15일(금)-16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5석 20매)

연극 <벚꽃동산>

12월 22일(금)-2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3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1,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부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안금주 하나유치원 원장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엘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2)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서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면세포인트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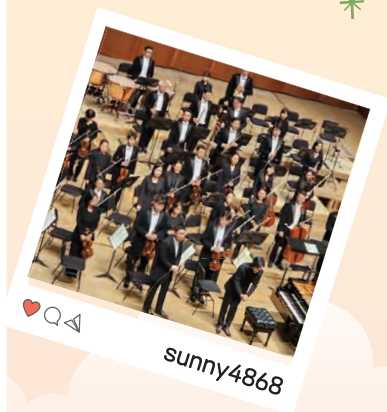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5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 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5월호

COUPON

COUPON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5.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EXPO 2030
BUSAN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연장



2023. 6. 9(금) - 7. 23(일) 평일 11시 / 주말 11시, 14시 (월, 화 휴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제작 극단 오오씨어터 입장료 전석 2만원 입장연령 36개월 이상 문의 및 예매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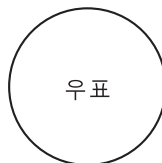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받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5 MAY





바순 김가원



첼로 장선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3 솔로리스트들의 Soloists 축제 Concert



피아노 김지윤



비올라 윤서영



플루트 이승민

지휘 백승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2023. 5. 23.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Insight
통찰의 시간 Music



해금 방병원

지휘 박상후

대금 손한별

Program

- ◆ 인왕제색도 (김준호)
- ◆ 해금 협주곡 "Verses" (T. Osborne)
- ◆ 파도(波濤): 물의 춤 (장석진)
- ◆ 대금 협주곡 "풀꽃" (김대성)
- ◆ 영원한 왕국 (김성국)

2023. 5. 18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3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2023.5.3.수 ~ 5.28.일

평일 단체공연 공휴일·주말 11:00 14: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051-607-6000 ARS 1번 **티켓** 전석 12,000원 **관람연령** 전연령 관람가(미취학 아동 부모 동반)

원작 안테르센 | 각색 신서영 | 작사/연출 김지용 | 작곡 진소영 | 음악감독 김성복 | 반주 이현주·이소진 | 안무/움직임연출 홍충민 | 조연출 김은옥 | 무대디자인 황지선
무대제작 진승휘 | 조명디자인 조세현 | 의상디자인 김현진 | 분장디자인 이지원 | 영상감독 이현우 | 무대감독 정순지 | 기획/홍보 백경옥·권미정·박지현
출연배우 이현주·황창기·이혁우·김은하·염지선·서보가·오희경·채민수·이태성·강승환·우성주·이소화·박미서·서예은·양희진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핑크퐁 클래식나라

뚜띠를 찾아라



출연
핑크퐁, 아기상어, 대니 구 (바이올린)
바사르 오케스트라 외

2023. 5. 20 SAT 3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 티켓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 주 관 | CREDIA MUSIC & ARTISTS

| 예 매 | 부산시민회관(051-607-6000) 또는 인터파크 티켓(1544-1555)

문화융합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리를 야구
전국 최강을 향해!



MUSICAL
**야구왕
마린스**

2023.7.5(수)-7.16(일)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 부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작 | 부산문화재단

LIVE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 051-607-6000(ARS 1번)